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 제주 우도 주민의 물이용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한 정 효

2020년 2월

# 제주 우도 주민의 물이용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조성윤

한정효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12월

한정효의 사회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9년 12월

# A Study on the Water Use of Udo Residents in Jeju Island

HAN, Jung-Hyo

(Supervised by professor CHO, Sung-You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2019. 1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Thesis examiner, KOH Sung-Man, Prof. of Sociology

Thesis examiner, KIM Seon-Pil, Prof. of Sociology

Thesis examiner, CHO Sung-Youn, Prof. of Sociology

Department of Sociology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 국문 초록

제주 사람들은 빗물이 지하로 스며든 후에 암석이나 지층의 틈새를 통해 지표로 솟아나는 용천수를 먹는 물로 사용했다. 그러나 용천수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봉천수를 먹는 물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봉천수는 개인집의 지붕이나 나무에서 내리는 빗물을 항아리에 모아 사용하거나 마을 공동의 저수지에 빗물을 모은 것인데 용천수가 확보된 곳에서는 생활용수나 소나 말이 먹는 물로 사용하였다.

물의 확보 문제에 있어서 우도 지역은 제주 본섬보다 자연적인 제약이 더 컸다. 제주 본섬에는 한라산과 계곡이 있고 해안을 따라 용천수가 나오고 있었지만, 우도에는 산이나 계곡이 없어서 제주 본섬이 갖는 자연조건과 달랐다. 이러한 외부적인 환경이 우도에서의 물 확보를 어렵게 하였고 가뭄이라도 들면 더욱 더 큰 위기가 닥쳐왔다. 또한 우도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식수 부족은 더 심해졌다. 물 부족은 우도 섬을 짓누르는 압력이었다.

이 논문은 우도 사람들이 겪었던 물 부족이라는 위기에 초점을 맞추어 물 부족 문제를 봉천수 물통으로 해결하려 하였던 점을 조사하였다. 우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이래 물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였는데 우도 사람들은 어떻게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였는지도 함께 조사하였다. 그리고 식수 부족 문제가 해결된 지금, 우도 섬 주민들에게 봉천수 물통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우도 주민들이 봉천수 물통을 만들어 사용하면서 우도의 자연 환경을 받아들이고 물의 자급을 실천했던 생활 사례를 조사하고 정리했다. 가뭄으로 물 부족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제주 본섬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극복하였고, 최근에 들어서서 해저 상수도관을 연결하여 간신히 오랫동안 주민들을 힘들게 했던 물 문제를 해소하였다. 그러나 주민들은 아직도 여전히 과거의 물 부족 때문에 곤란을 겪었던 시절을 기억하고 있었으며, 물통을 메워버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물이 부족해질 때를 대비하는 생각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우도, 용천수, 봉천수, 물 부족, 봉천수 물통**

# 목 차

I. 서론 .....	1
1. 연구 배경과 목적 .....	1
2. 선행연구 검토 .....	4
3. 연구방법과 조사과정 .....	6
4. 면담대상자 선정 .....	8
II. 우도의 물 .....	11
1. 우도의 지역적 특성 .....	11
2. 우도의 물: 용천수와 봉천수 .....	15
1) 용천수가 나오는 산물통 .....	15
2) 봉천수: 물통 이름과 마을 이름 .....	20
3. 주민들의 물이용 사례 .....	28
1) 빗물의 수질문제 .....	29
2) 물 공동체 .....	32
3) 물의 운반과 여성의 노동 .....	33
4) 물 부족 대책 .....	34
5) 가축의 물과 사람의 물 .....	36
4. 우도의 수원개발과 봉천수 물통 .....	39
1) 빗물을 모아두는 봉천수 물통 .....	39
2) 땅속에서 물을 찾는 지하수 개발 .....	42
3) 바닷물을 담수로 바꾸려는 시도 .....	43
4) 제주 본섬과 연결된 해저상수도 .....	45

Ⅲ. 우도 주민과 봉천수 .....	49
1. 보전해야 할 봉천수 물통 .....	49
2. 오래된 미래, 봉천수의 재발견 .....	52
Ⅳ. 결론 .....	55
참고문헌 .....	57
Abstract .....	59

<표 목차>

<표 1> 면담대상자(구술자) 인적사항 ..... 8  
<표 2> 우도의 최근 인구 증가율 ..... 14  
<표 3> 우도에 전해지는 물통 이름 ..... 23  
<표 4> 우도의 물통현황(2007) ..... 24  
<표 5> 우도지역 마을별 물통 보유 현황 ..... 26

<사진 목차>

<사진 1> 오봉리와 산물통과 마을하수 처리시설 안내도 ..... 19  
<사진 2> 종달리와 우도를 잇는 해저상수도의 출수점 ..... 46  
<사진 3> 해수 담수화 시설 내부 ..... 48

<그림 목차>

<그림 1> 우도의 마을 지도 ..... 20  
<그림 2> 봉천수 물통의 소재지 ..... 27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사람 몸은 70% 이상이 물로 채워진 존재이기에 물은 곧 생명이다. 그러므로 예로부터 인류 문명의 발상지로 일컬어지는 곳들이 강을 끼고 있는 지역이었다. 물이 풍부한 곳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까닭은 사람이 먹는 물 이외에도 모든 생명활동이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물이 풍부한 곳에는 인간에게 필요한 작물이 잘 자랐고 그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촌락은 물을 품고 만들어졌다.

제주도는 내륙지방보다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다. 그러나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제주도는 투수성이 좋은 현무암 및 조면암류가 널리 분포되어 있다. 따라서 제주지역에 내리는 빗물의 대부분은 지하로 흘러들어가고, 평상시 물이 흐르는 하천은 드물다(김선필, 2013: 54). 하천이 있지만 육지 지방처럼 물이 상시 흐르는 개천이 아니라 건천이기 때문에 제주 사람들에게 물은 확보하기도 어렵고 관리도 쉽지 않았다.

오늘날에도 가뭄과 홍수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위협이지만 오늘날만큼 기술적인 대비를 할 수 없었던 과거에 가뭄과 홍수는 제주사람들에게는 대재앙이었다.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물과 땅에서 솟아나는 물을 소중히 여기며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봉천수<sup>奉天水</sup>라 하였고, 땅에서 솟아나는 물을 용천수<sup>湧泉水</sup>라 하였다.

상수도가 개발 보급되기 이전 제주도 내 대부분의 마을은 용천수나 우물물이 있는 해안가와 일부 중산간 지역에 형성되었다. 물이 나오는 해안가를 따라 마을이 형성되었고, 중산간 지역에서도 물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며 마을이 유지 존속 되어 왔다. 해안에서는 용출수<sup>涌出水</sup>, 중산간에서는 봉천수와 용천수를 사용하였다(전경수, 1995: 54).

제주 사람들은 빗물이 지하로 스며든 후에 암석이나 지층의 틈새를 통해 지표로 솟아나는 용천수를 먹는 물로 사용했다. 그러나 용천수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붕천수를 먹는 물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붕천수는 개인집의 지붕이나 나무에서 내리는 빗물을 항아리에 모아 사용하거나 마을 공동의 저수지에 빗물을 모은 것인데 용천수가 확보된 곳에서는 생활용수나 소나 말이 먹는 물로 사용하였다. 즉 생활용수로 쓰는 붕천수와 먹는 물로 쓰는 용천수는 제주 사람들에게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물이었다.

제주의 옛 어른들은 물 허벅으로 물을 길어다가 부엌 물 항아리에 저장해 두었다가 식수로 쓰고, 씻는 물과 먹는 물을 구분하여 사용하였던 문화가 있다. 채소를 씻은 물도 함부로 버리지 않고 소나 돼지의 먹은 물로 사용할 정도로 물한 방울도 아껴 쓰고 재활용하였다. 제주 섬은 본토와는 바다로 격리되어 있었기에 조선 시대에는 정부 관리들의 유배지가 되었던 땅이었고 자연환경도 척박한 곳이었지만, 1970년대 이후 제주의 면모는 급격히 변화했다. 특히 1960년대 이후 지하수 개발과 어승생 저수지 개발을 시작으로 제주도의 물은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고 오랫동안 제주 사람들을 힘들게 하였던 물 문제가 해결되었다. 제주도는 생활의 여러 면에서도 편리한 곳이 되었으며 화산섬이라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곤란을 겪던 섬의 물 사정도 경제개발의 물결을 타며 매우 좋아졌다.

제주개발공사는 1995년에 지하수 환경조사를 마치자 먹는 샘물 ‘제주 삼다수’ 개발에 들어갔고 천연 화산 암반수를 뽑아 올린다. 비가 올 때 빗물이 현무암층을 거치면서 화산암반에 걸리는데 ‘제주 삼다수’는 지하 420m 암반층에서 끌어올려 정제한 것이다. 이 물은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미국, 홍콩, 사이판 등으로 0.5 리터와 2.0 리터 용기에 담긴 채 수출된다(제주특별자치도, 2018: 298).

제주도 당국은 먹는 샘물을 상품화하여 제주의 물을 경제자원화 하게 되었다. 오히려 지하수의 상품화는 건잡을 수 없을 지경까지 확대되었다(김선필, 2013: 73). 물이 귀해 살기 어려운 섬이었던 제주도는 이제 물을 퍼내어 외국에 수출하기에 이른 것이다. 지난 50년 사이에 제주도의 수자원 개발은 제주 사람들이 더 이상 먹는 물이나 생활용수 때문에 곤란한 일이 없게 해 주었다. 그런데 제주 섬의 부속 섬인 우도에는 식수와 생활용수의 곤란이 제주 본섬보다 오래 지속되었다. 우도의 물 부족은 우도 주민들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이 되었다. 가뭄이라도 들면 섬 전체가 긴장하였다.

개인은 물론 기업, 국가, 전 세계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있다. 위기를 맞은 개인과 국가에게 중요한 과제는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바뀌어야 하는 게 무엇인지 확인해야하고 또 제대로 기능하기 때문에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없는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해내야 하는 것이다. 개인이든 국가든 능력과 가치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환경에 기능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알아낼 수 있다(재레드 다이아몬드, 2019: 21).

물의 보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심각한 위기를 겪는 것은 우도 또한 마찬가지였다. 물의 확보 문제에 있어서 우도 지역은 제주 본섬보다 자연적인 제약이 더 컸다. 제주 본섬에는 한라산과 계곡이 있고 해안을 따라 용천수가 나오고 있었지만, 우도에는 산이나 계곡이 없어서 제주 본섬이 갖는 자연조건과 달랐다. 이러한 외부적인 환경이 우도에서의 물 확보를 어렵게 하였고 가뭄이라도 들면 더욱 더 큰 위기가 닥쳐왔다. 또한 우도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식수 부족은 더 심해졌다. 물 부족은 우도 섬을 짓누르는 압력이었다.

우도 사람들은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였던 것일까. 용천수만으로는 식수를 확보할 수 없자 우도 주민들은 땅을 파서 연못처럼 만들고 비가 올 때 모아 두었다가 사용하였다. 제주 본섬이 상수도 보급으로 편리하게 되었던 시점에서도 우도에서는 빗물을 저장하였다가 사용하는 방식으로 물이용을 하였다. 우도 사람들은 집안에도 물통을 만들어 두고, 마을 안에도 물통을 만들어 두었다. 모두 빗물을 모아두는 것이었다. 마을 안에 만들어 둔 물통에서 우도 사람들은 물 허벅이나 물지게를 지고 다니며 물을 운반하였다. 우도의 마을 마다 봉천수를 받아 모아두는 물통을 만든 것이야말로 주민들이 위기를 해결한 한 방식이다. 물이 부족한 섬이라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주민들이 고안해 낸 방법은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모아서 쓰는 것이었다.

이 논문은 우도 사람들이 겪었던 위기와 해결에 관한 것이다. 그 중에서 물 부족이라는 위기에 초점을 맞추어 물 부족 문제를 봉천수 물통으로 해결하려 하였던 점을 조사하였다. 우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이래 물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였는데 우도 사람들은 어떻게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였는지도 함께 조사하였다. 이 글에서는 주민들이 언제 어떻게 물통을 만들었고, 어떻게 이용하였는지를 중심으로 조사했다. 그리고 식수 부족 문제가 해결된 지금, 우도 섬 주민들에게 봉천수 물통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였다.

## 2. 선행연구 검토

물에 관한 인문학적 연구와 기술적 연구, 정책 연구는 대단히 많다. 여기서는 그 중에서도 제주도 주민의 물 문제와 이용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하겠다.

제주 물의 가치를 공동자원으로서 관리 보전해야 한다는 논의가 많아지고 있었다. 김선필은 제주의 물을 공공자원이라는 개념에 입각하여 연구하였다(김선필, 2013). 그리고 김선필은 제주의 물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살피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고민한 글도 발표하였다(김선필, 2017).

최근에는 버려지고 있는 제주의 빗물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쪽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늘어 가고 있다. 제주도의 빗물이용 활성화에 대해서는 박원배 외 2명이 연구한 것이 있다(박원배 외, 2004). 그들은 제주도에서의 빗물 이용 사례를 조사하고, 빗물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사회 안전성과 행복한 삶의 증대에 공헌하는 것이라고 했다. 제주도 당국의 물 관리 정책에 관해 비판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한 단체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있는데, 이 단체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참여환경연대는 제주의 물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전체 제주도민의 물 이용량을 줄이는 한편, 물 순환의 관점에서 빗물을 잘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제주의 소리, 2018년 3월 22일).

현길언은 제주설화에 나타난 제주 주민들의 물 문화나 인식을 다루었다(현길언, 1995). 그는 제주 설화에 나타난 인물이 물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지를 살피고, 오늘날 물의 효용성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우리들의 가치관을 비판하였다.

김새미오는 제주 사람들에게 있어 제주바다는 단절과 신선이라는 양면성이 있다고 하면서 표류할 때 절대 마셔서는 안 되는 물이 바닷물이었지만, 마실 수 있는 물은 ‘단물’이라 하여 달콤한 생명수라는 인식이 제주사람들에게 널리 공유되었다고 하였다(김새미오, 2019).

전경수는 제주인의 물이용 문화를 정리하고, 해방 이후 제주도 지하수 개발 정

책과 실태를 비판하였다. 물 이용문화 중에서 중산간 마을의 춤향 활용에 관한 문화를 설명한 것은 중요하다. 그는 제주도의 지하수가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기는 하지만, 관정의 상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제주도의 지하수를 지키는 것은 제주도의 생명을 지키는 것임을 강조하였다(전경수, 1995).

문경미는 제주도 전역의 용천수 현황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제주인의 인식을 폭넓게 다루었다. 특히 사라져가는 제주지역 용천수를 조사하고 용천수 물을 이용했던 사람들의 생활 양태를 정리하였다. 문경미는 제주 본섬의 용천수 이용관행을 살펴면서 식수통과 생활용수에 쓰는 물통을 구분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우도의 봉천수 물통에서도 볼 수 있는 물이용 모습이다. 또한 용천수에서 물을 길어가는 도구로 물 허벅을 주목하였다(문경미, 2015). 물 허벅은 여자들이 등에 지고 물을 나르는 운반도구였지만 남자는 물 허벅을 지지 않았다. 물 허벅으로 물을 운반하는 것은 우도에서도 보이는 것으로 우도와 제주도는 물이용 면에서 매우 비슷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병련은 제주 전역의 용천수와 봉천수 물통을 현장 취재하여 신문에 기고하는 한편, 제주 물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책으로 묶었다. 그러나 봉천수에 관해서는 깊이 있는 분석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고병련, 2016).

이상의 연구 성과를 볼 때 제주도 전체 지역의 물이용 실태와 관행이 상당한 정도로 조사되고 정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문경미와 고병련의 조사를 통해서 이제 제주도 전역의 용천수의 실태에 관해서는 전모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두 연구자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자들도 조사의 내용이 지나치게 용천수의 개발과 이용, 그리고 지하수의 개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상대적으로 봉천수의 이용에 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솟아나는 지하수를 통해 물을 얻는 것을 용천수라 한다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모아서 이용하는 것이 봉천수다. 제주도에서 봉천수를 많이 이용했던 사람들은 주로 중산간 마을 거주자들과 부속섬인 우도, 가파도, 추자도 등의 거주자들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 지역 주민들의 물이용에 관한 연구가 자세하지 않다.

우도에 관해서는 마을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모아 놓은 것으로 『우도지』(우도지편찬위원회, 1996)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가 각 분야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정리한 『우도면 역사문화지』(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2016)가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준다. 조성윤이 대학생원들과 함께 우도 지역을 방문하여 조사한 것을 묶은 것도 있다(조성윤 외, 2019). 조성윤은 우도의 역사, 경제, 해녀 활동, 해방 후 산업화를 겪는 우도의 모습과 이주민들과 원주민 사이의 갈등에 대해 썼다, 그러나 우도 주민의 생명수인 물의 이용과 정책에 관해서는 연구하지 않았다.

제주도민들이 해안가에 집중적으로 마을을 조성하고 모여 살았던 가장 큰 이유는 물 때문이었다. 용천수가 솟아나는 지역에 마을이 생긴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물이 부족한 지역에도 제주도민들은 살았으며, 그들은 물을 얻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 점에 관한 연구가 기존 연구에서는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이 논문에서는 제주도민의 물이용 실태에 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면서 우도 주민들의 물이용 사례를 조사할 것이다. 특히 우도 주민들의 봉천수를 모아 사용하기 위해 만들었던 물통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그것이 마을 공동체와 어떤 형태로 결합된 공동자원인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 3. 연구방법과 조사과정

이 논문은 제주대 사회학과 대학원 수업에서 비롯되었다. 사회학 현장 실습 수업 후 보고서를 내기로 하였다. 학생들은 자신이 관심 가는 주제를 정하여 소논문을 쓰기로 하였다. 논문 주제를 잡기 위해 우도의 과거와 현재, 우도의 문화와 해녀, 관광과 교통, 농업 및 어업 등 여러 분야가 거론되었다. 우도를 연구 대상으로 정한 것은 대학원 사회학과 수업에서 이미 추자도에 대한 조사를 한 바 있어서 다음 차례로 우도를 조사해 보기로 하였기 때문이었다. 우도 주민들의 생활을 알기 위해서는 우도를 방문해 주민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를 하기로 하였다.

우도를 조사지로 정하고 우도를 찾아갔을 때 나는 연못처럼 보이는 물통들이 우도 곳곳에 산재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현지 조사를 도와주었던 문화 해설사

에게 물으니 그 물통은 연못이 아니라고 하였다. 우도주민들은 우도에 상수도가 들어오기 전까지 그 물통에 빗물을 받아 모았고, 그것으로 먹는 물을 조달하였다고 알려 주었다. 빗물을 모아둔 연못에 지금은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다. 한편 상당히 깊어 보여서 지나다니다가 빠지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위험하게도 보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빗물을 모아서 식수로 쓸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 알고 싶어졌다. 그리고 지금은 상수도가 보급되었는데도 왜 연못을 그대로 두었는지도 궁금해졌다.

우도 주민들이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물통과 그것의 이용 실태를 알고 싶은 것이 이 논문의 시작이었다. 우도가 제주의 부속 섬 중 가장 큰 섬이어서 사람들이 살아왔던 모습은 제주 본섬과 여러 모로 비슷하였을 것이지만, 연못으로 보이는 물통에서 식수를 조달한 것을 보았을 때는 제주 본섬과는 다른 생활역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우도의 봉천수 물통에 관해 알아보려고 하였다.

우도 지역을 조사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현장조사의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였다. 현장조사는 우도의 봉천수를 직접 찾아가 보고 주민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현장 답사에서는 우도의 마을에 산재해 있는 물통을 직접 보고, 물통이 만들어진 이유와 사용의 역사, 시간이 변함에 따라 현재와 과거의 변화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조사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물통의 역사에 관해 주민들을 만나 인터뷰하였다.

우도지역의 물 사용에 관한 생활사를 알아보기 위해 2018년에 1차 조사를 하였다. 우도면 4개리에서 실시된 1차 조사는 2018년 11월 9~11일(2박3일)에 서광리 4명을 면담 조사하였다. 이때의 조사는 대학원 수업의 연장선상에서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소논문 형식으로 출판되었다(한정효, 2019).

추가 조사를 위해 수차례에 걸쳐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8년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2019년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2019년 10월 31일과 11월 16일에는 우도를 방문하여 모두 4차례 우도를 방문하였으며, 11월 19일에는 본 연구의 주제보자이자 우도의 문화 해설사를 하고 있는 김○○씨와 제주시에서 만나 우도 주민들과의 면담 결과에 대한 보충 질문을 했다. 현지조사 때는 서광리 4명, 친진리 5명, 오봉리 5명, 조일리 3명, 총 17명(여성 7명, 남성 10명)을 대상으로 면

담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중 1명은 우도 면사무소 직원이다. 또한 우도면장과 우도 노인회장은 두 차례 면담했고, 면담대상 중 만나게 된 이주민 부부도 면담했다. 이들 모두 우도면에 거주하고 있다.

면담은 주로 가정을 방문하여 면담 대상자가 봉천수(물통)를 이용한 이야기를 들었고, 물 부족 해결방안에 중점을 두었던 치수사업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면담 조사는 비교적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면담은 1사람 당 1~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면담 조사를 마치고 나서는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2018~2019년에 현장조사 때마다 우도의 물과 관련된 시설을 사진을 찍어 두었다. 이는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기존에 발행된 책자의 사진과 비교하며 우도의 물이용 변천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 4. 면담 대상자 선정

우도의 물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우도지역 주민들로부터 살면서 겪었던 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기로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면담자의 이름은 일부만 공개하였고, 봉천수와 관련한 면담 내용을 적을 때는 면담자의 마을 이름 옆에 번호를 기재하였다. 면담은 거의 자택에서 이루어졌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인 마을 노인복지회관에서 이루어졌다.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한 질문에 한꺼번에 대답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물 사용의 불편에 관해 느끼던 것들은 대부분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도 물 사용의 불편함은 우도 주민들로 하여금 제주 본섬처럼 빠른 시일 내에 물의 근대화를 염원하도록 한 것이며 물 문제 해결이 주민의 숙원사업이 되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였다.

<표 1>에서는 면담 대상자를 정리하였다. 이는 2018년 첫 번째 조사 때부터 2019년 조사까지를 망라하여 일괄 정리하였다.



<표 1> 면담 대상자(구술자) 인적사항

지역/ 면담자번호	자연마을	이름	면담장소	출생연도	성별	본적	비고
서광리01	상우목동	양○란	자택	1942	여	우도	
서광리02	하우목동	양○심	자택	1932	여	성산	
서광리03	하우목동	고○삼	자택	1934	남	우도	
서광리04	상우목동	강○선	자택	1937	남	성산	
천진리01	동천진동	고○월	자택	1935	여	성산	
천진리02	서천진동	한○택	노인회관	1939	남	우도	노인회장
천진리03	동천진리	윤○열	자택	1952	여	우도	
천진리04	동천진리	양○자	자택	1946	여	우도	
천진리05	서천지리	김○수	자택	1935	남	우도	
오봉리01	상고수동	김○철	면사무소	1960	남	제주시	정책보좌관
오봉리02	하고수동	김○선	자택	1952	여	우도	
오봉리03	주홍동	고○수	노인회관	1942	남	성산	노인회장
오봉리04	주홍동	이○훈	노인회관	1942	남	우도	
오봉리05	주홍동	강○근	노인회관	1942	남	우도	
조일리01	영일동	강○근	자택	1945	남	우도	
조일리02	영일동	고○수	자택	1938	여	우도	
조일리03	비양동	최○영	자택	1937	남	우도	
4개 마을, 17명							

우도의 노인복지회관은 우도의 역사가 한 데 모여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면담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약간만 이야기를 나눈 다음, 개별적으로 집을 찾아가 개인별로 이야기를 듣고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면담자의 대부분이 우도가 고향이었고, 제주 본섬에서 일찍이 우도로 건너가 살았던 사람들이었다. 출생년도를 보면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로 우도 지역의 물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분들이었다. 그러므로 이 세대의 경험은 우도의 시간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겪은 생생한 것이었다.

우도 지역주민들은 섬의 물 사정이 매우 나빴지만 자연환경의 제약을 극복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다. 우도지역에 물 문제가 다소 해결된 것은 오래지 않았다. 우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이래 주민들은 식수와 생활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과 힘을 모았다. 마을 안에 물통을 만들어 빗물을 모아 사용한 것이 마을 마다 있는 물통이다. 이렇게 우도의 봉천수는 오랜 세월동안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 논문의 주요한 대상은 우도의 물, 즉 봉천수이며 그 물을 이용하였던 우도 주민들이다.

## II. 우도의 물

### 1. 우도의 지역적 특성

연구대상 지역인 우도면은 제주시 동부에 있는 섬이다. 우도는 수중화산섬으로서 동부 성산포에서 약 3.8km 북으로 떨어진 곳에 있다. 우도는 화산활동에 의하여 이루어 졌으며 성산반도와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우도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속한 섬 중에서 가장 크다.

우도라는 명칭은 고문헌 여러 곳에 나타난다. 가장 먼저 『세조실록』에 등장하는데 제주 도안무사 한승순은 제주의 수비와 방어 조건을 보고하면서 “정의현 동쪽 우봉(牛峯)…중략,…우도(牛島)라 하여 왜선이 숨어 정박하여서 요해의 땅이 된다” 라고 기록하였다. 1530년에 『신증동국여지승람』(권 38 제주목)에는 “우도 둘레가 100리 이며, 제주 동쪽 정의현 경계에 있다.”고 하였다. 『남명소승』의 저자 임제(林悌)는 1577년 말과 1578년 초까지 제주에 머물며 일기의 기행문을 쓰는데 우도에 대해 쓰면서 “우도는 그 형상이 소가 누워있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소가 누워있다는 묘사는 이후 김상헌의 『남사록』(1601년)에도 나온다. 이 후 1793년에 나온 『제주대정정의읍지』에는 우도장(牛島場)이라 하여 우도가 말과 소를 키우던 섬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도는 소섬이라 불렀고, 제주사람들은 소의 제주 말인 ‘쉐’를 붙여 ‘쉐섬’이라고도 하였다(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우도면 역사문화지』, 2016: 제1장).

1890년에 제작된 『제주지도』에는 우도라고 표기하면서도 그 옆에 연평리(演坪里)라고 적었다. 연평리라는 지명에 관한 설명은 1986년에 발간된 『구좌읍지』에 나온다. “소섬이라는 명칭이 도민(島民)의 정서에 거슬렸기 때문에 1870년대에 우도에서 훈학(訓學)하시던 성읍리 출신 오완철 선생이 <물에 뜬 두둑>라는 의미에서 개칭한 것이다”라고 하여 섬의 형상을 시적으로 표현하였다(부영성, 1987). 그러나 ‘연평리’라는 우도의 다른 이름은 1986년 4월 1일에 우도면으로

승격되면서 잊혀지고, 지금은 우도 안에 산재한 무덤의 일부 비석에만 남아 있다.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우도는 ‘섬 속의 섬’이라는 독특한 이미지가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다. 최근 405년간 우도에 입도하는 관광객은 꾸준히 늘어 전국적인 지명도를 높였다. 그러나 이 섬에 사람이 들어가 살게 된 것은 그리 오래지 않았다.

우도에 사람들이 들어가 살기 시작한 조선후기 1843(헌종 9)년 때부터였다. 우도의 인구가 증가한 것은 제주 본섬의 인구 증가와 연관이 있다. 제주 본섬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경작지가 부족하게 된다. 이에 도민의 생계가 막연한 상황이 지속되었다. 특히 척박한 토지로 인해 발생하는 흉년은 새로운 경작지를 필요로 하였다. 그러자 제주도민들은 우도와 가파도의 목장을 개간하자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민원이 제기되자 두 목장이 개간하기에 좋은지 타당성을 검토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 두 목장은 바닷길이 모두 험난하고 포구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 우마(牛馬)관리가 불편한 점이 부각되었다. 이에 헌종 8년인 1842년에 목장을 폐기하게 되었다. 이듬해인 헌종 9년 1843년부터는 농경지로 개간하게 되었다(조성윤, 2019:12).

우도의 국영목장이 해체되자 우도에 본격적으로 사람이 들어와 살기 시작한다. 이는 우도 주변 수역에서 해초류 채취가 중요하게 거론되었기 때문이다. 즉 우도 사람들은 국영 목장지를 개간하여 농업을 하면서 바다의 자원 또한 중요한 소득원으로 활용하며 살았다(우도지편찬위원회, 1996: 88).

우도의 지형적 특성을 보면 우도봉은 해발 132.5m 로 섬 전체는 해발고도 3m 이내의 평탄한 대지형(臺地形)을 이루고 있다(송시태, 2003: 26). 음용수 취득과 관련해서는 용천수가 풍부한 곳은 아니다. 우도에는 용천수가 나오는 ‘산물통’이 한 곳이 있었고, 말(馬)들이 마시는 봉천수(물통)로서 ‘예물’도 있었다(우도지편찬위원회, 1996: 78). 입주한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용천수만으로는 먹는 물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지만 사람들이 살지 못할 정도로 우도가 물이 부족한 지역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도에 사람이 들어가 살기 시작할 즈음에는 사람이 거주하는 데 필요한 자원들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도에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던 이유는 중앙에서 관리하는

말 목장이 1697년부터 1842년까지 설치되면서 개간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 목장이 설치되기 이전에는 왜구나 왜선의 침입에 의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었고, 제주 본섬의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굳이 제주 본섬을 떠나 우도로 들어가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지 우도가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자원이 없이 황폐한 곳은 아니었다( 강만익, 1993: 5). 오히려 1843년부터는 제주 본섬의 여러 주민들이 우도로 건너가서 밭농사를 지으며 마을을 이루었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자연마을도 확대되었다.

1904년 우도에는 초가가 469채 있었고 마을도 7개 동이 있었다고 한다. 이후 1915년에는 상우목동과 하우목동, 동천진동과 서천진동 등으로 하나의 마을이 두 개 마을로 분리된다. 또한 1949년에는 고수동이 상고수동과 하고수동으로 분리되었고, 1970년에는 중앙동이 새로이 형성되어 현재 12개 동이 되었다. 이렇게 기존 마을이 분리되어 새로운 마을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꾸준히 인구가 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제주도문화원 연합회, 2016: 102-103).

우도의 인구 변화는 우도의 발전과 성장이기도 했지만 섬 지역의 제한적인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느냐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1904년 우도의 인구는 700명 정도였다. 즉 1840년 우도의 개간 이후 60여 년이 흐르자 큰 마을 하나를 이룰 정도로 인구가 늘었다. 즉 그 당시 우도로 건너가서 농사와 해산물을 채취하며 생계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음을 알 수 있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는 우도의 인구가 최고 3,599명(1978년)에서 최저 3,108명(1900년)을 유지하면서 인구가 가장 많아진 시기로 나타난다. 1980대로 접어들면서는 우도의 인구는 더 높아지다가 1991년부터 2001년까지는 인구가 수직적으로 하강하는 경향이 나타나 우도의 전체 인구는 2,000명 정도를 유지했다. 이는 다른 농어촌 지역이나 도서지역과 마찬가지로 대도시로 진출하려는 경향이 높아짐에 따라 우도에도 제주 본섬이나 육지부의 다른 도시로 빠져나가는 경향이었다고 판단된다(제주도문화원 연합회, 2016: 104).

그러나 2012년부터 우도에는 새로운 인구 증가가 나타났다(제주도 문화원 연합회, 2016: 106). <표 2>에서는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의 우도 주민의 인구 변화를 볼 수 있다. 가구당 인구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전체 인구수는 증가하면서 연평균 증가율도 높아지고 있다. 이는 제주도로 들어오는 이주민들이 우도에도 들

어왔고, 고향인 우도를 떠났다가 귀향하는 인구가 더해져 우도에 새로운 바람이 일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자원이 제한된 섬에서의 인구 증가는 자원의 배분에서 공동체의 갈등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예로부터 물 부족에 시달려온 우도 섬에서 인구의 증가는 새로운 위기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관광객 연간 200만이라는 우도의 관광지 홍보에서 보듯이 주거 인구 외에도 우도의 자연을 보기 위해 입도하는 관광객 수는 날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표 2> 우도의 최근 인구 증가율

연도	남자	여자	합계	가구수	성비	세대당 인원수	연평균 증가율
2010	763	822	1,585	731	107.7	2.2	▼0.5
2011	774	798	1,572	737	103.1	2.1	▼0.8
2012	823	794	1,617	778	96.5	2.1	▲2.9
2013	843	796	1,639	788	94.4	2.1	▲1.4
2014	837	830	1,667	828	99.2	2.0	▲1.7
2015	884	846	1,730	896	95.7	0.9	▲3.8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2006-2015, 『주민등록인구통계보고서』를 참조하여 필자 작성

위의 인구증가율은 계속 되어서 4년이 지난 2019년 4월 30일 기준으로는 인구 수는 1,867명(남 983명, 여 884명), 가구 수는 1,010세대로 계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www.jejumaeul.co.kr](http://www.jejumaeul.co.kr) 홈페이지 참조)

인구 이동의 새로운 움직임은 우도의 지역적 자원이 인구 증가를 감당하기에 버거운 현상을 낳게 한다. 우도는 오랫동안 제주 본섬과 다른 수자원 환경 때문에 사람들이 먹을 물이 부족한 것이 위기였다면, 현재 우도의 인구 증가는 우도

의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고민하게 된다. 200만 관광객을 자랑하고 있는 우도에서 유동 인구와 상주인구의 증가는 우도의 자연자원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과거에 우도 주민들은 제한된 자연조건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오늘날 우도의 문제를 진단하고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은 물 부족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우도는 어떻게 이 난관을 타개하였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 2. 우도의 물 : 용천수와 봉천수

제주는 화산섬이라는 자연환경 속에서 특이한 물 문화를 갖고 있었다. 상수도가 보급되기 이전까지는 물을 저장하는 방법을 모색하며 살았다. 왜냐하면 제주의 토질이 물을 머금기 어려운 화산회토라서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강을 이루지 못하고 지층 밑으로 스며들어 버렸으며 바다로 흘러들어가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주 본섬의 해안에는 용천수가 많이 나와 오랫동안 주민의 물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제주 사람들은 해안가의 용천수에서 물을 뜨고, 중산간 지역에서는 빗물을 모으는 물통을 만들어 공동관리 하였다. 반면 우도에서는 용천수가 나오는 곳도 있었지만 짠물이 섞여 식수로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고, 근본적으로 용천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빗물을 모아 사용하는 봉천수(물통)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우도의 용천수와 봉천수 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1) 용천수가 나오는 산물통

‘산물’이란 한라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라는 뜻으로 제주 본섬에서는 제주 곳곳의 용천수를 일컬었다. 제주 사람들은 한라산이 가지고 있는 신성함을 빌어 마을 용천수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였다.(문경미: 2015년 P.359)

우도에도 ‘산물’이 있었다. 우도는 제주 본섬과는 바다로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한라산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바닷가에서 나오는 용천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도 사람들은 이를 ‘산물’이라고 하고 그 우물을 ‘산물통’이라고 불렀다. ‘산물통’이 있는 우도 주흥동 지역은 ‘산물통 동네’라 하였다. 사람들은 산물을 ‘단물’이라고 불렀다. 바닷물은 염분이 있어서 마실 수 없지만, 염분이 없는 생수는 몸에 달게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이 물통은 사람들이 합심하여 인공적으로 판 우물로 둥근 통의 우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물이라 하지 않고 통(桶)이라 하고 있다. 이 통의 물은 생수인 산물로 쓸물일 때는 물이 솟아나지 않지만 밀물이 되면 바닷물이 밀려옴에 비례하여 담수가 해수 위로 뜨면서 물이 솟는다. 우도에서는 사실상 ‘산물통’ 이외에는 용천수가 나오는 물통이 없다. 그래서 물이 귀한 이 섬에서는 평상시에는 봉천수의 못의 물을 이용하다가 가뭄이 생겨 물이 부족할 때면 너나 할 것 없이 ‘물 허벅’을 지고 이곳으로 왔다고 한다. 특히 가뭄 때 이 산물은 우도의 생명수였다. 하지만 산물통의 용천수는 조수 간만의 차이 때문에 해수가 섞인 짠 맛이 날 때도 있었다. 또한 우도에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하자 이 산물통 만으로는 우도의 식수 공급이 충분하지 않았다. 우도 주민들은 먹는 물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었다. 나는 우도 지역의 면담자들에게 산물통을 이용했던 경험에 대해 물어보았다.

**오봉리02:** 아침 일찍 산물통에 물 길러가고 했는데, 조금 시간이 늦어지면 산물통이 면적은 한계가 있고 해서 동네 아줌마, 아가씨와 애들까지도 물허벅 지고 바케스에, 양쪽 어깨에 물지게 지고, 물을 길어 나르는데 집집마다 물 항아리 크기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큰 허벅은 여섯 허벅에서 7번 길어 날랐어요. 물을 나르다 보면 물에선 물 찌꺼기가 생겨나면 물 찌꺼기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동네 어른, 삼촌들이랑 동네 아낙네들 이런 저런 얘기 하면서 아들 결혼 날짜 받아 오고 하며, 심지어 명희네 집 초상이 몇 월 몇 칠이고 하는 대화도 했어요. 3, 4월이 되면 마늘하고 미역 채취하는 얘기며 마을에 사소한 일부터 큰일까지 산물에서 서로 소통했지요.

우도의 산물통은 해안가의 용천수로서 우도 사람들의 식수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물통 주변에는 물 허벅을 놓고 물지게와 양동이를 들고 온 사람들이 붐볐기 때문에 아침 일찍 가서 물을 길어 와야만 했다. 산물통의 물을 여러 번 뜨다 보면 물에서 찌꺼기가 올라왔다. 이때는 물이 저절로 가라앉아 맑은 물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사람들은 물을 길러 왔다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집안의 대



소사에 관해 이야기 하고, 나이든 사람과 젊은 사람, 여성들과 아이들까지 만나게 되었다. 이 산물통은 사람들이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체의 규칙을 지켜나가는 곳이었다.

**서광리03:** 산물통은 우도 사람 전체가 먹어도 싸움이 없는데 자기 동네 물은 물 한 허벅도 옆 동네 사람 주지 않으려고 기 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동네 물’은 우도 마을별로 만들어 쓰고 있던 봉천수 물통을 이른다. 즉 산물통은 마을에 상관없이 모든 우도 주민의 식수로 사용되었으며 이 산물통의 소유는 각 마을 단위가 아니라 우도 지역 전체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산물통을 만들 당시는 정부나 제주도 당국의 도움이 없었고, 주민들이 필요에 따라 주민의 힘을 모아 만든 것이었다. 그래서 이 ‘산물통’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지고 이용되었는지 구체적인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 최근 만들어진 해저상수도관 시설 앞에는 언제 어떻게 얼마의 자금을 들여서 건설되었는지 소상히 기록되어 있다. 그와는 달리 ‘산물통’은 우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서 식수를 찾던 중에 원천을 발견하였고 우물터를 조성하는 등 주민들 스스로 식수 문제를 해결하려던 증거의 하나이다.

**오봉리01:** 우도면 일대의 산물통이나 봉천수의 경우 개인 소유지에 삼삼오오 모여서 만들어 사용한 것이어서 행정적인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요. 정부의 지원을 토대로 만들었다면 자료가 있을 수 있으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삶을 위해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나 산물통을 식수로 쓰면서도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물이 해안에서 나는 용천수였고 바다와 가까웠기 때문에 생기는 수질 문제였다. 식수로 쓰는 ‘산물통’의 용천수는 빨래를 할 때는 빗물 보다 세탁이 쉽지 않았다. 바닷물이 유입되어 소금기가 있었기 때문에 거품도 잘 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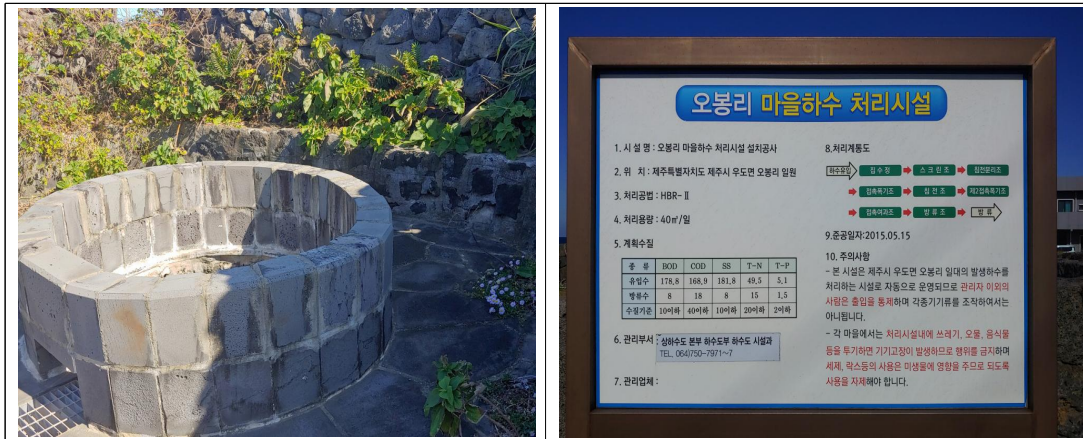
**서광리04:** 산물통은 빨래를 해도 바닷물 소금기가 있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가물이 심할 때는 산물이 짠기가 더 심해서 빨래해서 말려도 눅눅한 부분이 발생하였어

요. 비가 많이 오고 나면 산물도 단맛이 나서 빨래를 해도 거품이 나오고 때가 잘 빠졌습니다. 이럴 때 산물통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집에 큰 빨래 등을 해결 했어요 지금은 세탁소에서 처리가 가능하지만 30년 전만해도 산물통에서 아니면 봉천수 물통에서 물을 길어다 먹고 한쪽 구진물통에선 빨래, 송키 씻기, 소, 말도 양동이에 물을 떠다 먹이곤 했습니다. 우도에 살면서 물이 제일 힘들었어요. 식구 많은 집일수록 물도 많이 사용해야했기에 항상 부엌에 있는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야만 물질하려가도 마음이 편했으니깐요.

주민들의 식수를 해결해 주었고 애환이 담겼던 산물통은 현재 예전의 모습은 온 데 간 데 없고 주변에 돌담만 남겨 놓은 상태이다. 산물통 바로 옆에는 하수처리시설이 들어서 있다. 전에는 해녀들이 탈의장으로 사용했던 슬레이트집이었으나 그 집을 허물고 하수처리시설을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뒤에는 산물통이란 안내 표지판을 세워 놓았다(고병련, 2016: 438).

오랫동안 우도 주민들의 식수를 공급하던 산물통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긴 하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지조사를 위해 우도를 방문할 때마다 나는 산물통에 들렀다. 산물통은 우도 사람들의 식수를 해결해주던 소중한 자원이었는데 어느 사이에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장소가 되었다. 산물통의 역사를 알리려는 안내 표지판도 세우고 보수공사를 하긴 했지만 산물통의 관리는 매우 허술해 보였다. 물통 안을 들여다보니 썩은 물 위로 쓰레기가 떠 있다. 옛날처럼 물통 안으로 바닷물이 유입되면서 물의 흐름을 만들어 내는 것 같지도 않았다. 그야말로 고인 물로 썩어가고 있는 것이다. 거기다가 바로 옆에 하수처리시설장을 세워버리는 바람에 산물통 주변에서는 오물이 썩는 것 같은 냄새가 났다. 생수가 나던 곳 옆에 하수처리시설이 들어선 지금, 산물통의 안내표지판은 빛이 바래 글자가 보이지 않고,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안내판은 반듯하게 세워져 있다. 산물통 안으로 들어가면 둥그런 물통을 둘러싼 돌담에 기대어 물팡이 있다. 물 허벅을 부러놓았던 물팡은 돌을 쌓은 후 시멘트로 발라 고정시킨 것이다. 돌 사이에서 부서지는 시멘트가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 1> 오봉리의 산물통과 마을하수 처리시설 안내도



출처: 필자촬영, 2019년 10월 31일

그 외에 우도의 용천수는 선반물이 있었다. 우도봉 끝 절벽 아래에는 선반물이라는 용천수가 있다. 천정에서 떨어지는 선반물은 맥주병에 채우려면 30분이나 걸릴 정도로 수량은 매우 미미하여 일상생활에서는 식수로 사용할 수 없으나 우도에서는 신성한 물로 여겨져 포제나 기원을 드릴 때에 이용하였다고 한다. 천진리의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마을 사람들이 이 물에 대해 가지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천진리05:** 우도봉 해안 들까니 절벽은 비가 오면 위에 있는 물이 조금씩 절벽을 타고 떨어지는 물을 어린학생들이 소풍 때 재미삼아 병에다 물을 받아 버리고 했죠, 그리고 마을에서 신성한 물로 여겨져 포제나 기원을 드릴 때 말고는 이용은 전혀 없습니다. 누군가 들까니 절벽 밑에 촛불 같은 것이 여러 개 있어서 포제나 기원 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은 있지요, 지금은 그런 것 아무것도 없고 선반물이라는 명칭 자체도 아예 없어요.

선반물은 절벽에서 가까스로 떨어지는 물로서 주민의 식수로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 채집되는 정도였다. 그 또한 오래전 일로 오늘날의 주민들은 그 물을 사용하지도 않고 있지만 몇몇의 사람들이 그 물을 신성하게 여겨 기원 때 쓰고 있을 뿐이다. 즉 선반물은 봉천수보다는 먹는 물로 좋은 물이었을지언

정, 주민의 생활에 도움이 될 정도로 추출량이 많은 것이 아니었다.

우도에서는 제주 본섬에서처럼 용천수가 나는 곳에서 먹는 물을 조달했지만, 해안가에 한 곳에 있던 우도의 용천수로는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다. 제주 본섬의 용천수와 달리 물의 양이나 질에서도 우도의 물은 주민의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다. 이에 우도 사람들은 마을 별로 물통을 만들게 되었다.

## 2) 봉천수: 물통 이름과 마을 이름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 물을 저수하여 사용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것이다. 우도 또한 물이 귀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빗물을 모아 이용한 것이 봉천수 물통의 시작이었다. 우도의 오봉리 주흥동에 있는 산물통을 제외하면 우도의 물통은 모두 빗물을 모으는 봉천수 물통이었다. 봉천수奉天水는 마을 뒤의 높은 곳이나 마을 가운데에 지질상으로 물이 고일 수 있는 곳을 산정하여 커다란 인공수조를 조성함으로써 빗물이 자연스럽게 고이도록 한 것이다.

<그림 1> 우도의 마을 지도



우도의 봉천수에 대한 문헌 기록은 『탐라계록<sup>耽羅啓錄</sup>』에서 볼 수 있다. 이 문헌에는 우도에는 생수가 한 군데도 없으며 빗물(天落水)을 받기 위해 만들어 놓은 못이 두 개 뿐이라고 했다. 이형상 목사는 이 글에서 우도에 물을 저수하기 위한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우도의 유명한 봉천수 물통으로는 ‘예물’이 있었다. 우도의 봉천수 물통으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우도지편찬위원회, 1996; 586). 그러나 지금은 매립되어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예물이 있어 예물동네라고 불린다. 물통 이름이 마을 이름인 것이다. 왜 이러한 사정이 생겼던 것일까.

이 예물은 본래 수량이 많은 용천수였는데 샘의 뒷동산에 집이 신축되면서 그 이후로는 샘이 솟지 않았다고 한다. 이 예물은 옛날 물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마을 이름이 고수동(古水洞)이 되었다. 한편 일본 사람이 우도에 들어와 관 물통이라는 뜻으로 ‘왜물’이었던 것이 ‘예물’이 되었다고도 전한다. 이 일대 위쪽에도 물통을 봤다. 그러자 이곳의 물은 ‘윗예물’이 되었고, 이 물통 이름을 따서 마을 이름도 ‘상고수동’이 되었다. 처음 있던 ‘예물’은 아래쪽의 물이라는 뜻의 ‘알예물’로 구분하면서 마을 이름은 ‘하고수동’이 되었다.

마을 이름에 물 또는 물통을 붙여서 부르는 것은 우도의 독특한 문화이다. ‘상고수동 물통’, ‘하고수동 물통’, ‘동천진동 물통’, ‘서천진동 물통’, ‘상우목동 물통’, ‘하우목동 물통’ 등은 마을이름이 곧 물통 이름인 것이다. 이렇게 우도의 마을과 물 공동체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물은 먹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생활 전반에 필수적이다. 그래서 우도에는 먹는 물통이 있으면 생활용수에 필요한 물통이 또 있었다. 이 물통은 온갖 것을 다 해내는 물통이라 하여 ‘구진 물통’이라 하였다. ‘구진’은 굶다-굶은-(구진)에서 알 수 있듯이 깨끗하지 않아 굶은 것을 말한다. 구진 물은 구정물의 제주어다. 제주 본섬의 경우는 용천수가 나오는 곳에 칸을 나누어서 ‘먹는 물- 채소 씻는 물- 빨래하는 물’로 나누어 썼다(문경미, 2005). 하지만 우도에는 용천수가 없이 빗물을 받아 ‘먹는 물통’과 쓰다 버린 물로 허드레 것들에 이용하는 ‘구진 물통’으로 나누어 식수와 생활용수의 위치를 구분하였다. 옛 연평초등학교 자리에도 구진 물통이 있었다. 그러나 하수관로 공사를 하면서 물을 빼냈고 물통의 모습은 형태로만 남아 있다.

우도에는 물통을 만든 사람의 이름을 붙여 물통 이름을 부르기도 하였다. 영일동에는 ‘김진사통’이 있다. 우도의 개척자인 김 진사가 1844년에 우도에 입도하여 거주하며 물통을 짰다고 전해진다. 이 물통은 현재에도 김 진사 집터 바로 옆에 남아 있다.

서천진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물통은 ‘양벙방통’이었다. 벙방이란 조선시대 지방관아의 육방 중에 하나인 병전에 관한 일을 맡는 사람이었다. 우도 목동들의 식수로도 사용하고 가축용수로도 사용할 목적이었다. 서당 훈장이었던 박훈장이 짰다는 물통은 ‘박서방통’이다. 현 씨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짰다 해서 ‘성서방통’이라는 물통도 있다. 여기서 ‘성’은 ‘현’을 다르게 부른 것이다. 또한 근대기에 들어서서 하우목동에 제일교포 정찬흠씨가 회사해 준 물통은 ‘정찬흠통’이라고 했다.

물통의 이름에는 전설 같은 이야기도 따라 붙는다. 동천진동에 있는 ‘각시물’이 그렇다. 동천진동 주민들이 물이 나올만한 곳을 봤고 석축까지 쌓았지만 물이 나오지 않았다. 비가 와도 물이 고이지 않아 고민이 많았다. 하루는 지관(地官)을 청했는데 지관은 땅의 기운이 남자라서 여자의 기운이 필요하다 하였다. 지관은 서쪽의 어두운 곳에서 ‘색시물’을 얻어오라고 하였다. 동네사람들은 구좌읍 하도리와 종달리 사이에 있는 ‘서느랭이굴’속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항아리에 담고 가마를 이용하여 물을 운반해 와서는 정성껏 제사를 지냈다. 물통에 가져온 색시물을 붓자 메말랐던 흙속에서 습기가 오르더니 차츰 물이 솟았다고 한다(제주도 특별자치도 문화원 연합회, 2016: p115).

우도에는 총 25개의 물통이 있었다고 했지만 예전 물통의 이름이 모두 전해지고 있지는 않다. 우도의 물통의 수도 조사에 따라 25개라 하기도 하고, 24개, 또는 23개라고도 한다. 마을 이름이 붙어 있는 물통의 경우에는 마을 공동체가 관리하고 사용하였다. 개인의 물통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공동의 물통은 사람들의 입에 늘 오르내렸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에게도 전해졌다고 보인다. 이렇게 우도에는 마을 이름을 지을 때도 물이 관련되었고, 물통의 이름을 만드는 데도 연유한 이야기가 많다. 이 만큼 우도에서의 물은 마을 공동체의 생명과 같은 것이었다. 아래는 우도의 마을 이름과 물통 이름을 정리한 것이다.

<표 3> 우도에 전해지는 물통 이름

행정구역	자연마을	물통 이름
천진리	동천진동	각시물통, 박서방통, 밧계통, 세우통, 양벙방통, 족제비통, 출카니(소여물통), 정찬읍통
	서천진동	
서광리	상우목동	예물통, 사우통, 성서방통, 좌윤이통
	하우목동	
	중앙동	
오봉리	주홍동	산물통(곤여물)
	전흘동	개개비통, 예물통, 구진물통, 관통
	삼양동	
	상고수동(웃예물동네)	
	하고수동(알예물동네)	
조일리	비양동	구진물통, 변괴통
	영일동	김진사통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 연합회, 2016: 114-167쪽

우도 주민들은 지대가 낮아 물이 모일 수 있는 곳을 물통 자리로 정했다. 웃예물은 수맥을 찾아 우물을 팠지만 용천수는 안 나오고 비가 오면 물이 고여 물통이 되었다. 현대처럼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던 때는 주민의 인력으로 땅을 파고 물을 저장할 곳을 만들었다. 시멘트가 없던 때는 찰흙을 반죽하여 바닥을 메워 물을 채웠다. 그러므로 마을의 봉천수 물통은 주민 공동의 자산이 되었다.

2007년에 조사된 바에 의하면 우도에는 12개 동 마을이 있다. 우도 해안 쪽으로 11개 동이 있으며 우도 중앙에 있는 마을을 중앙동이라 한다. 우도 주민들이 생활용수로 사용한 물통(봉천수통)은 12개 자연마을에 25개소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25개의 봉천수 물통은 상수도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점점 사용되지 않고 있다가 매립되어 사라진 경우가 많다. 다음은 우도의 행정구역과 자연마을을 조사하고 마을 안에 있던 물통의 개수를 조사한 것을 표로 제시하였다.

<표 4> 우도의 물통 현황(2007)

행정구역	자연마을	물통	비고
천진리	동천진동	4	
	서천진동	5	
서광리	상우목동	2	
	하우목동	2	
	중앙동	-	
오봉리	주흥동	1	산물통(곤여물)
	전흥동	1	
	삼양동	1	
	상고수동	1	
	하고수동	1	
조일리	비양동	4	
	영일동	3	
계		25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 연합회, 2016; 264쪽



우도의 물통 수가 2018년 내가 현지 조사를 하였을 때 만난 주민은 봉천수 물통의 개수를 24개로 회상하였다.

**오봉리02:** 우도는 다른 지역과 달라서 봉천수가 섬 치고는 제일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내가 어릴 때만해도 우도 봉천수 물통이 24개 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어머니가 물통에 가서 물 길어 오라하고 어머니는 바다에서 물질하러 가거나 밭에 나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항상 물은 제가 담당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려면 10번 정도 왔다 갔다 했던 거 같아요. 어떨 때는 친구들과 놀고 싶어서 고무줄놀이를 하다 한두 번만 길어오면 일마치고 오신 어머니에게 불호령이 떨어지곤 했어요. 그리고 약속했죠. 다음날은 꼭 채워야 한다고. 그때는 빨래며 집에 생활하는 물을 물 허벅으로 길어다 날라야하니 요즘같이 직장생활하면서 물 길어다 먹고 살라면 어떻게 살지 생각만 해도 그러네요.

그러나 2019년 재조사 때는 우도 문화해설사인 김○○가 조사하고 작성한 우도 마을별 물통 보유 현황을 건네받았다. 여기에는 우도에 있던 물통 수가 23개였고, 2007년 학술조사지에서는 보이지 않던 중앙동의 물통이 존재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김○○는 삼양동에 원래부터 물통이 없다고 하였으나 학술조사서에는 삼양동에도 물통이 있었다고 나온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물통에 대한 기억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이 때문에 학술조사 때의 증언과 나의 조사에서도 물통의 수는 다르다.

이 논문에는 우도에 있던 물통 수는 25개에서 23개 사이라고 적어놓을 수밖에 없다. 주민들 사이에서 물통 수가 이렇게 서로 다르게 기억되고 다른 기억이 기록으로 남는 것은 왜 그런 것일까. 이는 물통을 만든다는 것이 행정의 도움을 받으면서 추진했던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도 당국이 추진하는 사업이었다면 이 사업에 들어간 자금과 기술에 관해 행정자료가 남아 있을 것이다. 애초에 물통의 개수가 몇 개였는지, 어느 마을에 몇 개의 물통이 있었는지 주민들 간에 서로 다른 기억을 갖고 있는 것은 우도 주민에게 물통의 필요성이 희박해지고 있는 증거이기도 하다. 물통은 필요에 따라 마을 주민들이 합심하여 만들었다. 어떤 사람은 땅을 내놓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대부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 물통을 만든 것은 마을의 이름으로 실시하였고 이는 마을 공동의 자산이 되었다. 이후 상수도관이 들어오면서 마을의 물통의 기능은 축소되었다. 물통에 대한 주민들의 필요도 줄어들고 관심도 희미해지는 것이다. 봉천수가 보존되어 있는 네 마을은 오봉리와 서광리, 조일리, 천진리이다. 김○○ 씨의 자료에 따르면 예전에 사용하던 봉천수 물통 중에 7개가 폐쇄되어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남아 있는 봉천수 물통 15개는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우도 주민의 식수로 사용하던 용천수 물통인 산물통은 상수도 보급과 함께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산물통은 폐쇄하지는 않았고 관리가 소홀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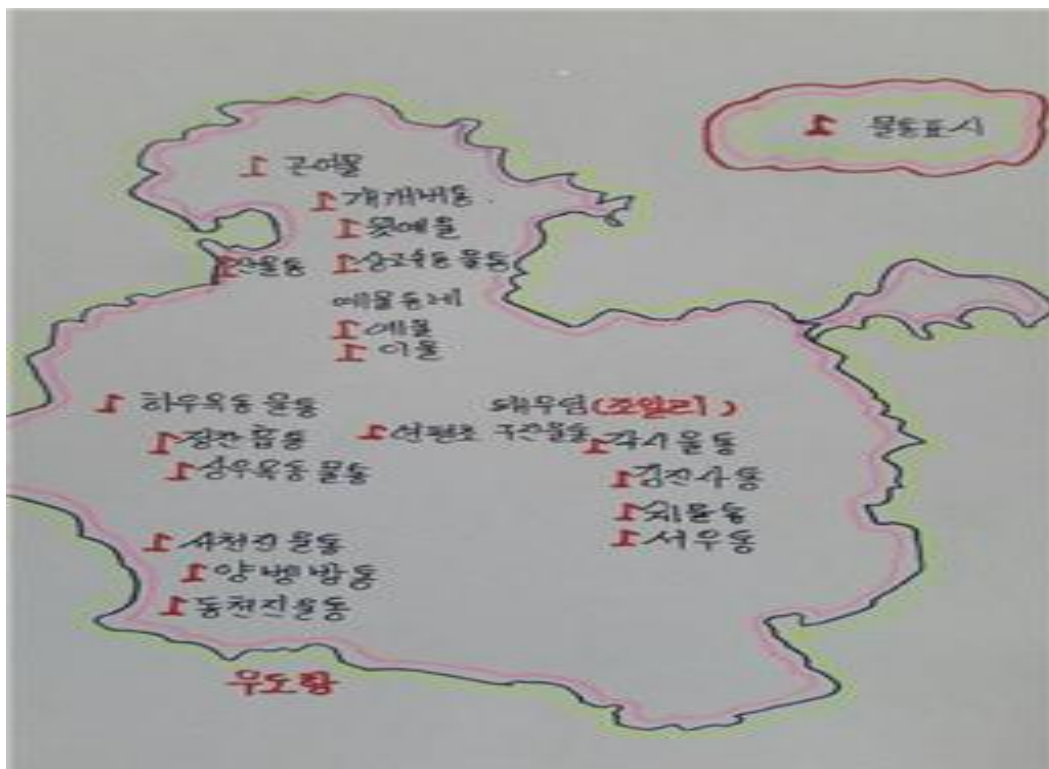
<표 5> 우도지역 마을별 물통 보유 현황

행정구역	마을이름	예전 물통 수	현재 물통 수	현재 이용 상태	비고
천진리	동천진동	3	3	농업용수	1개 폐쇄
	서천진동	3	2		
서광리	상우목동	1	1	농업용수	2개 폐쇄 1개 폐쇄
	하우목동	3	1		
	중앙동	1	1		
오봉리	주흥동	1	1	사용안함	산물통
	전흥동	3	1	농업용수	2개 폐쇄
	삼양동	-	-	-	
	상고수동	1	1	농업용수	1개 폐쇄
	하고수동	2	1		
조일리	비양동	2	2	농업용수	
	영일동	3	3		
4개리	12개 마을	23개	16	15개 (농업용수통으로 사용)	7개 폐쇄

출처: 우도 문화해설사 김○○ 제공, 2019년 11월 19일

아래의 <그림 2>는 자료에 남아 있는 봉천수 물통과 현재 있는 물통을 우도의 지도 그림 위에 표시한 것이다. 섬 전체에 고루 물통이 산재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주민의 생활 전반에 봉천수 물통이 필요하였으며 마을마다 공공자 원으로서 봉천수 물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림 2> 봉천수 물통의 소재지



출처: 한정효 그림

예전에 식수로도 이용했던 물통(봉천수)이지만, 상수도가 공급된 후 봉천수는 농업용수로 활용되고 있다. 집안에서 개인적으로 물통을 만들어 빗물을 받아쓰던 생활 모습도 사라졌다. 그러나 우도의 밭에 쓰는 물은 제주 본섬처럼 지하수가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남아 있는 봉천수통에서 농사에 필요한 물을 쓰고 있다. 이때 농업용수라는 것은 제주의 본섬처럼 밭작물에 스프링클러 기계를 이용하여 물을 뿌리는 물이 아니고 농약을 희석시킬 때만 사용되는 물이다. 우도 주민들은 해저상수도관 매립으로 식수와 생활용수를 본섬에서 공급받고 있지만

농사를 짓는 물은 여전히 마을에 있는 봉천수 물통에서 조달하고 있다. 봉천수 물통은 여전히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 3. 주민들의 물 사용 사례

제주는 예로부터 보리와 조 및 고구마를 주식으로 이용해왔다. 제주의 척박한 농경지 여건상 조와 보리 그리고 고구마는 3대 식량작물로서 오랫동안 재배되어 왔다. 재배시기도 보리가 동계작물인데 반하여 조는 하계작물로 농경지 이용 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작물이었다. 우도 또한 제주의 어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1960년대, 70년대에 조, 보리, 고구마를 주로 재배하였다. 1970년대 제주의 고구마는 농가 수입을 올리는 데 기여하였고 유채, 보리와 함께 3대 환금작물이었다. 그러나 1980년 이후 제주의 고구마 산업은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주정원료와 당면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도에서도 고구마를 재배하는 농가가 줄어들었다. 그 외에도 태풍이나 병충해도 우도의 농산업에 영향을 끼쳤다. 현재 우도는 고구마, 유채, 보리, 조 등의 작물을 밀쳐내고 땅콩, 쪽파, 마늘이 새로운 3대 소득 작물로 자리 잡았다(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 연합회, 2016: 229쪽).

우도 마늘의 특징은 쪽파와 마찬가지로 씨앗용으로 재배되는 것이다. 땅콩, 마늘, 쪽파 등 우도 농업의 특징은 밭작물 위주로 우도의 자연환경에 보다 더 적합한 작물을 선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주본섬에서는 비닐하우스를 짓고 농업용 지하수를 이용하며, 밭작물에도 스프링클러를 이용하고 있지만 우도에서는 농작물 선택에서 물 공급 문제를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 사람들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식수와 생활용수를 어떻게 확보하고 해결해야 하는지는 늘 고민이 큰 문제였다. 다음은 물 확보가 어려운 자연환경 아래서 우도주민들이 만들어 낸 독특한 물이용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빗물의 수질 문제

물이 부족하였던 우도에서는 1970년대에 일어났던 새마을 운동으로 전혀 예상치 못했던 풍경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새마을 운동의 과제 중 하나가 초가집을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꾸는 것이었는데 우도 사람들은 이 일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슬레이트 지붕을 이용하면 초가지붕에 비해서 물을 모으기 쉬웠기 때문이다. 슬레이트 지붕의 처마에 물을 모을 수 있는 처마홈통을 만들고 빗물을 모을 수 있도록 물탱크를 연결하여 생활에 필요한 물을 모았다. 1961년에 우도의 등대에 근무했던 한용택(1935년생)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그때 당시는 지붕에 떨어지는 물을 배관을 따로 만들어서 정화를 시켜서 일정한 온도로, 저주조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물을 전부 받아서, 그 물로 일 년 열두 달을 먹죠(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 연합회, 2016: 261).

빗물을 모아서 식수로 사용하였던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물통을 만들어 빗물을 모았다. 학교의 급수시설마저도 빗물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아 우도의 물 사정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알 수 있다.

다음은 과거 우도지역민들은 물통(봉천수)을 어떻게 이용하였는지 생활사례를 정리하였다. 우도 주민들은 빗물의 소중함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였다.

**천진리01:** 마을마다 봉천수를 받을 우물을 파서 거기에 물이 고이면 그 물을 가지고 생활했지요. 이 물은 우리 동네 식수와 생활전반에 걸쳐 없어서는 안 될 물이죠.

동네의 물통이 있었지만 가정마다 따로 물통에 물을 모아 생활하였다.

**서광리02:** 가정마다 봉천수를 받는 통을 따로 만들어 식수 및 세안 등을 해결했어요. 봉천수 받아서 사용했어요. 집들이 대부분 초가집이라 비가 오면 초가를 따라 빗물이 떨어져서 향아리, 바가지 같은 것을 이용하여 물을 받아 식수로 사용했어요.

가정마다 있던 물통에는 벌레가 생기기도 하였다. 어린 시절에 집안에 있는 물

통에서 벌레를 발견하였을 때의 일화를 우도의 문화해설사인 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였다.

벌레가 물에 살았기 때문에, 이건 사람이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생물이 사는 물인데 사람이 먹어서 무슨 문제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뼈 없는 고기를 먹었다고, 물을 마시면서 고기도 함께 먹었다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가정이나 동네의 물통 외에도 해안가 주변의 물웅덩이의 물도 식수로 이용하였다.

**천진리03:** 해안가 주변 돌 웅덩이에 고인 물을 물 허벅에 모아다 식수로 사용 했어요. 이 물은 마셔보면 일반 물과 달리 살짝 단맛이 나서 좋았어요.

그러나 집에서 모은 빗물이든 봉천수 물통에서 길어온 물이든 식수로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수질 문제 때문에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이 병에 걸렸던 것이다.

**오봉리02:** 봉천수에 있는 물을 식수로 사용 할 때는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특히 비가 많이 내릴 때면, 고여 있는 물이 문제가 됐습니다. 우도봉 꼭대기에서부터 각종 동물의 배설물과 함께 내려오는 물은 봉천수가 있는 곳까지 타고 흘러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비가 와서 쓸려 내려가든, 자연적으로 가라앉을 때까지는 식수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는 집에 미리 받아 놓은 물을 식수로 이용했습니다. 그 물 또한 불을 가열해 끓여 먹지 않으면 안됐습니다. 만약 끓여먹지 않을 땐 속병으로 많은 고생을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참 우리세대는 힘들게 살았습니다. 쌀이 없어서도 힘들었지만, 우도는 제주도 바로 옆 인근에 섬이지만 생활이 달라도 너무 많이 달랐습니다. 지금은 제주도에 사는 사람이나 우도에 사는 사람이나 모두 똑같습니다. 우도에서도 ‘삼다수’를 마시며 살고 있습니다.

우도가 고향인 고충석 선생은 회고록에서 우도에서의 어린 시절을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상수도가 없던 시절 다른 지역 해안가 마을에서는 바닷가에서 나오는 용출수를 길어다 먹을 수 있었지만, 우도에서는 빗물을 식수로 사용하였다. 가뭄이 심해지면 오염의 정도는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였다. 뱀, 개구리가 모여 사는 것도 모자라서 때로는 죽어 있기도 했으니 풍토병이 없으려면 없을 수가 없었다. 우도 사람들은 한 집 건너 한 명씩 간장병을 앓았다. 내 아버지도, 사촌형도 간장병에 걸려 고생을 하였다. 이 모두가 식수가 원인이었다(고충석, 2016: 667).

우도 사람들에게 식수의 수질 문제는 곧바로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 되었다.

**천진리04:** 이 물의 문제점이 식수로 사용하게 되면 수질 문제로 인해 속병이 많았어요.

**천진리03:** 우도는 50년 전에는 전부 초가집이다 보니 초가집 지붕에서 내리는 빗물을 받아 항아리나 다라이나 바케스에 물을 받아 먹다보니까 그때는 병들이 많아서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 옛날에도 물을 끓여 먹었어요. 안 그러면 속병이 나요. 음식 잘못 먹는 것처럼 배탈 설사 나고요. 칠십 평생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물질하러 하루 종일 바다 짠물에서 5시에서 6시간 살다 보면 물 먹고 싶어서 안 끓인 물 먹으면 혼났지요. 옛날 생각하면 서럽습니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기도 하였다. 가정에서 빗물을 모은 곳에는 금붕어를 키웠다. 금붕어가 모기 유충을 잡아먹었다. 또는 물을 끓여 먹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며 살았다.

**조일리 03:** 마을 주민들끼리 만든 봉천수에 모기 유충들이 많아서 식수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따랐지만, 가정에서 빗물을 모아서 사용하는 봉천수는 모기 유충들의 천적인 금붕어를 키워 이를 해결하여 사용 했어요.

**오봉리 03:** 이 물의 문제점이 식수로 사용하게 되면 수질의 문제로 인해 속병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물을 그냥 마실 수가 없었어요. 항상 끓여서 먹으면 괜찮은데 그 때는 봉천수 물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 깨끗한 물을 먹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

동안 담수화 시설과 상수도물이 들어와도 식수로는 정수기나 생수(삼다수)를 먹고 있어요.

식수 문제는 오랫동안 우도 주민들을 괴롭히는 문제였지만 주민들은 나름대로의 지혜를 발휘해서 물 때문에 병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지냈다. 하지만 물 때문에 병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우도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몸에 나쁘지 않은 깨끗한 물을 마시고 싶다는 바람은 당연한 것이었고 주민으로서의 권리였다. 하지만 행정면에서 우도의 식수문제를 해결하려는 대책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 2) 물 공동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개인적인 일 외에도 가정의 대소사 등으로 물이 많이 필요해지는 때가 있다. 이럴 때 우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였을까.

**조일리01:** 가정마다 봉천수를 받는 물통을 따로 만들어 식수 및 세안 등을 해결했어요. 그래도 가정에 있는 봉천수는 아껴 썼어요. 집에 제사 잔치 소상, 대상 등 옛날에 모든 집안 큰일들은 집에서 하다 보니 항상 물이 소중했어요.

**천진리01:** 집에 제사 잔치 소상, 대상 등 옛날에 모든 집안 큰일들은 집에서 하다 보니 항상 물이 소중했어요. 그때 물로 부조를 많이 했지요. 그 당시에는 서로서로도와가면서 살았지요. 잔치도 하면 집에서 5일씩 하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3년 상을 했지요. 1년 소상 2년 대상을 했었어요. 지금은 돈만 주면 호텔에서 결혼식 하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에서 지내고 하지만 과거에는 동네사람끼리 서로가 공동체 같은 생활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경조사나 집을 짓을 때 집안에 사람들이 없어서 동네 사람들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두 모다 들어 물이나, 불 땀 것들 많이 도와주고 했지요. 나도 옛날에 잔치날이나, 상 날 때, 동네 사람들이 부조로 허벅에다 물을 길어다 주고 했어요. 나도 부조로 물 허벅에다 물을 길어 주고, 영장 날 때 물로 받고 했지요. 그땐 물을 저 나르는 일은 여자들이 했고요. 생각해보면 그 땐 물이 큰 돈이었지.



소상과 대상, 경조사로 음식 준비를 해야 하고 행사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물이 많이 필요했다. 이때 우도 사람들은 물을 날라다 주면서 이웃을 도왔다. 이런 모습은 50년 전의 제주 본섬에서도 이루어지던 것이다. 마을의 여성들이 물을 허벅에 지고 가서 큰일을 치루는 제공해 주었다. 우도에서도 물은 마을 공동체가 서로 간에 베푸는 협동의 상징이었다. 이를 사람들은 ‘물 부조한다’고 말한다. 요즘처럼 관혼상제에 돈 봉투를 주는 부조가 아니라 물로서 집안의 큰일을 도왔던 것이다. 그래서 물이 큰 돈 역할을 하였다고 하는 것이다.

### 3) 물의 운반과 여성의 노동

우도 주민들은 집안에서 빗물을 모으기도 하고 마을 안에 있는 봉천수통에서 물을 길어왔다. 그러나 식수는 되도록 바닷가 쪽에 있는 산물통에서 운반해 왔다. 그런데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못했던 당시 그 물은 어떻게 운반했던 것일까.

**오봉리02:** 산물통은 썰물과 밀물이 있어서 항상 물 허벅지고 가서 물을 밀물 때는 바가지로 떠서 길러 다니고 했지요. 썰물 때는 두레박으로 길고요. 남자아이들은 지게 지고 양동이 2개에다 물을 길고 다니곤 했지요. 마을에 가뭄이 오면 산물통이 북새통이 나죠. 밤에도 썰물 때까지 허벅지고 기다렸다가 길어 갔어요. 평상시보다 전쟁이 따로 없어요. 서로가 다툼도 생겨요.

주민들은 여성인 경우는 물 허벅으로, 남성인 경우는 물지게를 이용하여 물을 길어왔다. 우도의 어린이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를 돕기 위해 물 운반을 맡았다.

**천진리01:** 내가 한 열 한 살 쯤에, 그때 친구들과하고 재미삼아 시작한 것 같다. 어머니, 아버지가 밭에 가서 일 끝나기 전에, 저녁에 친구들과하고 허벅지고 동네 물통에 가서 물을 서너 번씩 담고 집에 있는 물 항아리에 가득 채우고 하였지.

그러나 여성들과 달리 남자들은 물 운반을 여자들의 일로 여기는 경우도 있다. 천진리03과 오봉리03은 남자가 물 허벅을 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회상한다. 남자가 물 허벅을 지는 것은 놀림감이 되었기 때문이다.

**천진리03:** 내가 왜 물 허벅을 저야 돼? 그 때는 남자는 물 허벅지면 남자가 아니다  
라며 놀리고 했지, 그래서 나는 물 허벅으로 물 한번 담아서 집에 간 적이 없어요.

**오봉리03:** 물 허벅을 지는 건 일절 없어요, 다 여자들이 지는 거라서 남자들은 일  
절, 그때는 남자들은 좋았지요. 지금은 남자 여자 구별이 없지만, 옛날이야 상당히  
구별 많이 했지요.

면담을 한 주민들 중 여성들은 물을 길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지만, 남  
성들은 남자가 할 일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물 허벅은 여성의 물 운반 도구이며,  
남자가 물을 운반할 때는 물지게를 이용하기도 하였으나 그 일도 어른이 되기  
전에 잠깐 하는 것일 뿐이었다. 우도의 주민들이 물 문제로 고통을 받는 것은 자  
연 조건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운반 도구가 물 허벅 밖에 없던 때 물 운반은 여  
성에게 부과된 가사 노동의 강도를 높게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을 길러 가는 것이 매우 힘든 노동이었기 때문에 물을 준비하지 못하였을  
때는 물을 훔쳐 가는 일도 있었다. 또 물을 길러 물통에 갔다가 거짓말을 해 가  
면서 물 길는 차례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서광리01:** 어떤 사람은 큰일 난 것처럼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차례를 무시하고, 먼저  
물을 길어가기도 하는데 우리 동네가 작다보니 서로 다 알고 있죠. 거짓말하는 것을  
알아도 그냥 봐두어요. 오죽해야 쌀 도둑보다 물 도둑이 있었겠습니까. 물 길어오지  
못하면 남의 집에 사람이 없을 때 물 훔쳐오기도 했어요.

#### 4) 물 부족 대책

우도 내의 물 문제 중 가장 큰 문제는 가뭄이었다. 가뭄이 들면 섬 전체의 물  
이 말라버렸다. 봉천수를 담아 놓았던 물통은 바닥을 드러냈다. 이럴 때 주민들  
은 어떻게 물 부족 상황을 타개하였던 것일까.

**서광리01:** 물이 없을 때는 도둑질도 했지만 종달리까지 배 타서 4시간 왕복 걸려  
물 길어 왔습니다. 지금은 20분 거리인데 그때는 파도가 일거나 가뭄, 태풍까지 오

면 세상이 막막했습니다. 그런 시절을 살았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좋아져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도 제 나이가 저승이 내일 모래입니다.

1980년대의 가뭄은 종달리에서 드럼통으로 물을 실어 와야 했던 적도 있다. 1982년 5~6월 두 달 간의 강수량은 제주 측후소가 개설된 1923년 이래 가장 극심한 여름 가뭄이었다. 3개월째 계속 되는 가뭄으로 제주도의 여름 농사가 모두 폐작 위기에 놓였고, 중산간 지역과 섬 주민들은 혹독한 물 기근을 겪었다. 섬 지역은 봉천수도 말라 버렸다. 우도는 봉천수와 우물이 다 말라 버렸다(제주도 상수도 개발 60년사, 299쪽)

**오봉리02:** 가뭄이 들면 농작물 피해도 있지만 일단 우도에는 당장 마실 물이 없었어요. 배 있는 집은 제주 종달리에 배 타고 가서 플라스틱 통으로 물 실어 왔어요. 통 크기는 지금 삼다수병 10개 들어입니다. 통은 동남에 장날에 가서 사든가 세화장에서 샀지요.

가뭄이 심각해지자 제주도 당국은 중산간 마을과 섬 지역에는 급수 지원을 위해 도에서 소방차와 해군 함정을 동원하여 물을 실어 날랐다. 이러한 위기의 지역은 지금도 우도 주민들에게 물이 없을 때의 공포를 상기시킨다.

우도에서는 운반용 물 허벅, 운반용 물통들이 모두 생활필수품이었다. 또한 집 안에서 빗물을 모아 두기 위한 물통을 만들어 두기도 하였다. 우도 주민들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물통을 마련하며 가뭄 대비를 하는 동시에 마을 주민들끼리 힘을 모아 가뭄 대책을 세워나갔다. 그러므로 사이가 안 좋은 경우라도 화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서광리02:** 우리 집 물통은 다른 집보다 크고 담으로 쌓였습니다. 아니 검은 모래 해다가 시멘트 발라서 내가 물통 보수했주. 그리고 가뭄이 온다고 하면 빨래도 모았다가 비가 올 때 까지 모아 놓았고 물을 사용하는 것은 우도 사는 사람이라면 먹는 쌀처럼 아꼈습니다. 가뭄이 심할 때는 성산항 그리고 종달리 가서 물을 가져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그마한 통통배 타고 가서 종달리 수돗물을 플라스틱 통에다 싣고 오기도 하고 하루 여러 번 배로 물을 길어 왔습니다. 때로는 여러 사람이 집합해서

물 길어 와서 서로 나누어서 쓰기도 하고 물을 빌려주기도 하고 물을 빌려오면 갠  
아 주면서 서로가 어찌면 공동체 생활이 되는 거죠. 서로가 사이가 안 좋았다가도  
가뭄이 심하거나 태풍이 불면 화해가 되는 거죠. 서로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덕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오늘날 생각해보면, 옛날에 동네사람들도 봉천수(물통)  
길러 갔다가 서로 만나기도 하고 그때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서로가 집에서  
수돗물 먹다보니 집에 찾아가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가뭄과 같은 섬의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은 협동하여 물 부족 사태를 해결하였  
다. 이웃 섬에 가서 물을 가져오는 데도 사람들이 함께 하였다. 싸움을 하여 사  
이가 좋지 않다가도 물이 부족하면 힘을 합쳤다. 물을 길러 가기 위해 물통에 가  
게 되면 이웃들과 만나기도 하였다. 물통은 공동체의 마음이 모이는 곳이었다.  
물 부족이라는 위기에서도 우도 사람들은 마음을 합쳐 곤란을 타개하였다.

#### 5) 가축의 물과 사람의 물

물은 사람들이 먹기도 하지만, 생활용수가 없어서도 안 된다. 또한 인간과 함  
게 사는 가축도 물을 먹어야 했다. 우도 사람들은 먹는 물통과 구진물통으로 구  
분하여 물을 사용하였다. 오봉리에 있는 개개비통이 그런 경우다. 개개비는 개구  
리를 이른다.

**서광리03:** 옛날에 이 물통에서서도 물을 길어다 먹었지, 주로 소 먹이 물이고, 빨래  
도 하고 아이들이 목욕도 하고 했지,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맹꽁이들이  
요란스럽게 아침저녁으로 울어 대곤 했지.

**서광리01:** 보통 첫 윗물은 먹는 물로서 사용하고 두 번째 물은 채소나 김장 배추  
씻고 세 번째 물은 빨래하고 마지막 맨 밑에 구진 물로는 아기 똥기저귀 빨고 밭에  
가서 일하던 일복을 빨래했습니다.

일상생활 중에는 빨래하기와 목욕하기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었다. 주민들은  
큰 빨래와 작은 빨래를 구분하여 세탁 장소를 선택하였다. 빗물은 바닷물이 섞인  
물보다 빨래가 잘 되는 편이라 불편이 없었다. 그러나 언제나 가뭄이 문제였다.

목욕탕이 없던 때 우도 사람들은 봉천수를 데워서 목욕물로 사용하였다. 한 방울의 물이라도 아껴야 했기 때문에 식구가 모두 그 물로 목욕을 했다. 여자들은 여름에는 어둠이 내리면 집에서 했고, 겨울에는 불을 때서 부엌에서 목욕을 했다.

**서광리01:** 산 물통에서 빨래를 해도 바닷물기가 있어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집마다 물통(봉천수)을 만들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해소했어요.

**서광리03:** 집에 물통(봉천수)에서 물을 떠서 여름엔 목욕도 하고 겨울엔 우도가 목욕탕이 없어 부엌에서 큰 솥에 장작에 불을 때 뜨거운 물을 이용해 온 식구 목욕도 했었지요.

**천진리03:** 여자도 여름철에 몸 씻기 할 때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집에 있는 물통(봉천수)에서 물을 떠서 몸 씻기도 하지만, 주로 저녁 먹고 난 다음 어둠속에서 몸 씻기를 많이 했지요, 겨울철에는 물을 뜨겁게 해서 부엌에서 했지요. 몸 씻기 하고 남은 물은 더러 작은 서답하고 했어요.

우도의 아이들은 여름 내내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면서 놀았다. 바다에서 놀고 나면 소금기 물을 헹궈야 한다. 비가 온 후라 웅덩이에 물이 고이면 그 물로 헹궈 줄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헹궈 물이 부족해 곤란을 겪었다. 바닷물에서 놀아 소금기 어린 몸을 씻어주어야 하지만 몸을 씻을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피부가 벗겨져 각질이 일어나는 일이 다반사였다.

**조일리02:** 해안가 주변에 돌 웅덩이에 큰 웅덩이, 작은 웅덩이 여러 곳이 있으면, 큰 웅덩이 물은 큰 빨래도 많이 하고, 작은 빨래는 집 물통에서 물을 떠서 하고 했지요, 빗물이 고여서 만들어진 거라 비누나 세제를 많이 사용 안 해도 때가 잘 빠졌어요. 우리 주변은 바닷가 근처라 비만 자주 오면 물이 어렵지 않은데 가뭄 때면 웅덩이 물도 오래 안 갔어요. 빨래도 계속 나오는 물이 아니다보니 2, 3일 지나면 더러워서 깨끗한 물을 찾아다니곤 했습니다.

**천진리05:** 우도에 비가오고 나면 바닷가에 작고 큰 웅덩이가 두 세 개 정도 있는데 여름에는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들이 바다에서 수영하다 놀다가 집에 올 때는 웅

덩이 물, 집에 있는 물통(봉천수), 빗물 고인 데서 몸을 씻고 물이 귀하다 보니 하루 종일 햇볕에 몸을 까맣게 타서 등, 어깨는 탄 각질이 일어나고 얼굴도 별경게 반 익어서 여름 내내 바다에서 생활을 많이 했지요. 50년 전부터 90년까지는 여름에는 바다가 제일 좋은 추억이 남을 만큼 겨울철 왜야 여름에 태운 살갓이 하얗게 벗겨지곤 했습니다.

바다에서 놀기도 했지만 물통에서 노는 어린이들도 있었다. 바다에서 놀면서 몸에 붙은 소금기를 씻기도 했지만 물통 자체가 놀이터였다. 이때는 아이들은 식수로 쓰는 물통이 아니라 구진물통에서 놀았다.

**조일리01:** 남자들은 여름철에 바닷가에 가서 헤엄치고 나면, 산물통에 가서 몸을 행구고, 그렇지 않으면, 동네 물통에 가서 소들하고 같이 목욕하고 했지, 겨울철에는 부모님이 시키지 않으면 아예 목욕을 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솥에다 물을 넣고 불을 지펴서 간단하게 목욕을 하였지.

깊이가 꽤 깊었던 물통이지만 안전 장비 같은 게 있을 리 만무했던 때 아이들의 익사 사고도 몇 차례 있었다. 우도가 고향이고 어린 시절 내내 우도에서 지낸 김○○는 자기 기억으로는 세 번 쯤 어린이 익사 사고가 있었고 모두 죽었다고 하였다. 그는 자신이 태어나기 이전에도 그런 류의 사고는 있었을 것으로 짐작하였다. 그러나 마을 차원에서 물통이 위험하니 매립하자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지금 같으면 마을의 위험 장소로 지정되거나 철책을 두른다든지 접근 금지 푼말이라도 붙였을 텐데, 그런 조치는 없었다. 우도의 물통에는 지금도 특별히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는 하지 않고 있다. 안전 문제는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라는 게 공통된 생각이었다. 아이가 빠져 죽는 일이 났지만 물통은 계속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였다. 안전사고는 개인 책임이었지만, 우도 전체의 물은 안전하게 확보되지 않은 까닭이었다. 우도에서는 물통이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보다 자연 재해로 인해 물 부족 사태가 벌어지는 게 더 위험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개인의 안전은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었고, 공동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물통은 없애서는 안 되는 자원이었다.

물 부족, 식수 부족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우도에서 주민들은 빗물을

받아먹고 살 수밖에 없었고 빗물을 모아 식수와 생활용수로 썼음을 살펴보았다. 이렇게 우도 사람들은 자연에서 주는 물, 즉 봉천수를 이용하면서 섬의 척박한 자연환경에 대처하여 왔다. 그럼 점에서 우도에서의 봉천수는 매우 귀중한 자원이었고, 물통은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식수원이었다. 그러나 인구 증가나 가뭄은 우도의 물 문제를 심각하게 했다. 물 공급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우도의 숙원사업이 되었다.

#### 4. 우도의 수원 개발과 봉천수 물통

다음으로는 우도 주민들은 물 부족할 때 어떤 불편을 겪었는지를 주민의 인터뷰와 자료 조사를 통해 알아보았다. 이에 따라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도의 물 정책이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 1) 빗물을 모아두는 봉천수 물통

우도 지역에 가뭄이 들어 물이 부족해지면 주민들 간에는 물 분쟁이 일어났다. ‘하고수동 물통’과 ‘상고수동 물통’처럼 서로 인접한 물통이라 하더라도 이웃 마을 물통의 물을 떠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다. 1946년생인 고순덕 씨는 과거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다.

영일동 가다보면 거기 ‘진새통’이라고 해서,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이 풍부하였어. 우리 ‘양방통’의 물을 다 먹어서 ‘진새통’에 가면 남자들이 막아서서 물을 안 줘. 막 사정해야 한 허벅 조금 길어 오고 했어(2016년 9월 9일 채록, 제주도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2016: 261).

가뭄이 계속되면 물을 도둑맞지 않기 위해 동네 청년들은 물 당번을 서야 했다. 물을 길러 오면 집마다 물 허용량이 있었다. 집에 하루에 물 다섯 허벅을 주기로 했다가 가뭄이 심할 때는 두 허벅을 주는 등 물 사용량도 조절했다.

물통에 물들이 원활히 안 들어서니까, 그때 당번을 했어요. 당번, 나도 당번을 했었는데... 서천진동. 봉천수는 가뭄이 오면 당번을 서 가지고 한 집에 하루에 두 허벅씩을 준다든지, 그리고 제삿날은 열 허벅을 주고 ... 요즘처럼 가물면 물이 막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네 회의를 해 가지고 아 이것을 회복해야 되겠다 ... 결정이 되면 청년들이 당번을 서지. 당번을 서서 하루에 몇 허벅씩, 한 집에. 제삿날이거나 잔치 거나 무슨 상을 당했거나 하면 많이 가져가게 하고, 내가 열아홉 살 때까지 했으니까. 1960년대 정도지(2016년 8월 12일 채록, 제주도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2016: 270).

우도에서의 물 부족은 우도 주민들 사이에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각인되어 있다. 물통에 물이 바닥을 드러내며 물 부족 사태가 생겼을 때의 일은 전쟁에 비유되기도 한다.

우리 동네 우물은 양방통이었다. 그러나 이 물이 가뭄이 들면 옆 동네 사람들이 훔쳐갈까 봐 밤마다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며 불침번을 서야했다. 한마디로 물과의 전쟁이었다.(고충석.2019: 667.)

봉천수에 식수를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봉천수 물통에서 물을 퍼내어 밭에 물을 대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그야말로 농사는 비가 오면 다행이고 오지 않으면 작물이 타들어가도 물을 댈 수 없었다. 그러므로 우도의 농업은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작물을 선택하게 하였다.

우도 물은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했수다. 가물면 그거를 밭에를 못 주게 했거든. 동네 묵언의 약속이니까. 밭이 아무리 말라 타도 물통의 물을 못 주는 거야. 식료수라고 해서 절대 못하게 하는 거야(제주도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2016: 264).

물이 귀한 만큼 봉천수에 대한 관리도 매우 엄격했다. 물의 양이나 사용처에 관해 엄격한 관리를 하는 동시에 봉천수의 수질 관리도 마을 공동체가 맡아 하였다. 봉천수는 마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생활하수가 스며들 수 있었고 농가에서



기르는 말과 소도 함께 이 물을 이용했으므로 오염의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우도 주민들이 물에 관한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우도의 자연적 환경, 즉 제주본섬에 비해 용천수가 풍부하지 않은 데에 있다. 용천수가 나는 곳이 있었지만 잔물이 섞여 식수로 부족했기 때문에 식수도 봉천수, 즉 빗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물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우도 주민들은 1958년 3월에 하우목동 청년회가 주축이 되어 저수지를 만들었고 이 봉천수 물통에서 식수를 해결하려 하였다. 1950년대까지 우도에는 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집수지가 두 군데 있었다. 깊이는 11미터의 이 집수지에는 빗물을 담아 두었고 685세대가 이 물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가뭄이 들면 봉천수가 줄어들었다. 물을 확보하기 위해 우도주민들은 성산과 종달리로 나가 물을 배에 싣고 와야 했다. 이러한 일은 가뭄이 들 때마다 반복되었다(제주발전연구원, 2008: 956).

제주 본섬에서처럼 가정마다 수도가 들어오는 일은 우도 주민들의 염원이었지만 간이수도 사업 기공식은 1966년이 되어서야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하루 300톤의 물을 주민 4000여 명에게 급수하는 계획이었다. 1968년에는 우도 동천진동에 저수 면적 4만 3천㎡, 저수용량 10만 8천 톤 규모의 우도 저수지가 건설되었다. 이 저수지의 물을 급수하기 위해 마을로 본관과 지선을 깔았고 20개소에 공동수도도 가설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물이 고이지 않았다. 물은 또 흙탕물이어서 식수로 먹을 수가 없었다. 이에 이듬해에는 전문기술진이 누수의 원인을 진단해 누수방지 방법을 알아냈다. 그러나 누수방지 공사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주민들은 동천진동에 있는 봉천수 통의 물을 식수로 사용하면서 우도 저수지의 물은 가축용으로 사용했다.

1991년에는 북제주군이 우도의 조일리에 시설용량 10만 톤 규모의 저수지를 완성하였다. 규모가 크다고 하여도 빗물을 모아서 쓴다는 점에서 봉천수 이용방식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저수지의 용량이 커지면서 우도의 물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이 저수지에도 물이 충분히 고이지 않았다. 이 저수지는 우도봉 비탈면에서 내려오는 물을 도수로를 통해 저수지로 모이게 설계한 것이었지만, 문제는 우도봉이 송이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내리는 빗물이 땅속

으로 스며들어 버리는 것이었다. 이후 보강 공사를 했지만 저수지를 이용하여 용수를 공급하기에는 부족한 양이었다.

용천수가 귀했던 우도에서 물의 역사는 봉천수의 역사이다. 물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는 우도의 생존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저수 시설을 만들며 봉천수를 잘 이용하려 했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았다. 이에 우도에서는 지하수의 개발을 모색하게 되었다.

## 2) 땅 속에서 물을 찾는 지하수 개발

집수 시설 공사가 실패로 끝나자 1974년에는 지하수 개발이 시작되었다. 지하수를 파려는 시도는 이전에도 있었다. 1933년에는 천진동에서 조합장의 주관으로 지하수를 뚫으나 용출량이 적었고 염분이 다량 함유되어 평소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우도의 물에 대한 고민은 늘 주민과 행정의 숙원사업이었다.

지하수 개발 사업은 1974년 농업진흥공사가 시행하여 그해 12월에는 3개소를 굴착을 한 중에 두 곳에서 지하수가 나왔다. 우도봉 북쪽 지점과 영일동과 중앙동 사이에서 굴착한 관정에서 나오는 지하수의 양은 하루 300톤 규모였다. 북제주군은 이 물을 이용하여 상수도 급수 시설 공사를 하기로 하였다(제주특별자치도, 2018 상수도개발 60년사: 265쪽).

상수도 시설은 12개 자연부락 중에서 6개 마을 입구까지만 공동수도를 가설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우도 전체 가구 695 가구의 20%만 수도물 혜택을 받았고 나머지 주민들은 계속 봉천수를 이용하였다. 게다가 지하수는 마을 입구까지만 수도로 연결되었기에 주민들의 불편은 여전하였다. 이에 공동수도를 마을 안까지 이어주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물은 염소 이온 농도가 높아서 식수로 이용하기 어려웠다. 그때의 일을 주민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였다.

**서광리04:** 그때 관정수가 2~3개 정도 있었는데, 물이 양이 적어 식수로 사용하기보다, 소금기가 좀 있어서 주로 밭에 물을 주거나 생활용수 주로 빨래도 하고, 채소도 씻기도 했지만, 물 양이 적어서 우도지역 전체 주민에게 공급하기에 매우 부족했지.

제주도 당국은 우도에서도 제주 본섬이 어승생 댐을 건설해서 수원을 개발한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수원을 확보하려고 했다. 그러나 제주 본섬과는 다른 환경적 요인이 문제였다. 제주 본섬의 경우는 어승생 수원지 개발에 성공했고, 또 해안가 마다 풍부한 용천수의 수맥이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우도에는 산이 없었고 용천수의 수맥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도의 물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다. 물 부족을 해결해달라는 주민의 요구는 날로 높아졌으나 해결 방법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집수 시설로도, 지하수 개발로도 충분한 물을 확보하지 못하자, 우도에서는 1990년대부터는 해수의 담수화 사업이 우도 물 문제를 푸는 유일한 해결책으로 여겨졌다. 해수담수화는 생활이나 공업에 직접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바닷물로부터 염분 등 용해물질을 없애고 순수한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얻어내는 방법이다. 쉽게 말하자면 바닷물의 염분을 걸러내서 실생활에 사용하기 좋은 물을 얻어내는 기술이다.

### 3) 바닷물을 담수로 바꾸려는 시도

제주도 수자원개발 기획단은 우도의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담수화 사업계획을 세웠다. 제주도 수자원개발 기획단은 우도와 추자도의 만성적인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담수화 사업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1995년 9월 연구 결과를 북제주군에 통보하였다. 북제주군은 1995년 9월부터 10월까지 국내 담수화 현장 견학, 전문가 및 기업체 자문 등을 실시한다. 담수화 시설을 통해 물 공급을 하고 있는 일본 오키나와 현 야구니 촌과 미나미 다이도촌에 우도 주민과 추자도 주민 대표를 각각 5명씩 견학 시킨다(제주특별자치도, 2018: 266). 이때 견학단의 일원으로 일본에 가서 물을 마셔 보았던 이야기가 지금도 회자되고 있었다.

**천진리02:** 1980년대 넘어가면서 담수화 작업으로 방향을 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당시의 신철주 군수에게 우도 물 문제 해결을 강력히 주장해서 지원을 받아 고병수 개발위원장들과 이장들 네 사람이 이 담수화를 배우려고 일본으로 현장 견학을 간 것이죠. 시노모토 섬에 도착해 담수를 마실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커피를 타서 마셨어요. 그래서 그 맛이 괜찮고 아무 문제가

없어서 이거다 하고 진행하려고 다시 우도로 돌아왔어요.

해수 담수화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는 매우 높았다. 그러나 담수화 시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천진리02:** 이 사업은 당시 언론인이었다가 우도로 이사 오게 된 김순두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해수 담수화에 투자하느니 본섬과 수도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방향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1999년 3월부터 해수 담수화 사업을 통한 물 공급이 시작되었다. 우도의 담수화 사업은 수도 사업자가 담수화 설비를 이용해 수돗물을 공급하는 시설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된 것이었다. 당시 우도의 식수 및 생활용수의 평균 소비량은 315톤이었다. 당시 해수 담수화 시설의 초기 생산능력은 1일 500톤이었으므로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충분한 양이었다.

우도 담수화 시설 사업의 성공은 국내의 섬마을 환경을 개선하는 자극제가 되었고 유사한 사업이 전국적으로 생겨났다. 2004년에는 이러한 북제주군의 노력이 인정을 받아 행정자치부로부터 2004년 상수도사업 경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제주일보, 2004.12.14., 우도저수지 및 담수화 시설을 활용한 해수).

하지만 담수화 사업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우도의 물 사정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담수는 먹는 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다. 우도 주민들은 물 사정이 예전보다 좋아졌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담수화 사업이 실패했다고 느꼈다.

담수화가 왜 실패했느냐 하면 ... 먹는 데만 쓰니까 목욕도 못하지, 밭에도 못 주지 딱 엄하게... 그냥 식용수로만 쓰게 하니까. ... 담수화를 전국 처음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막 문제 삼고 하니까 여론이 들어간 거지( 2016년 8월 12일 채록, 제주도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2016: 533).

**천진리05:** 담수화 공장에서 고장이 자주 발생하여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담수화한 물은 불편한 게 세탁기가 오래가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바닷물을 정화한 물을 사용한 게 원인이 컸다고 생각돼요.

우도의 담수화 사업은 성공하였다는 평판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불편은 계속 이어졌다. 또한 담수화 시설이 가동된 후 우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었고, 이에 따라 펜션과 식당도 늘었다. 따라서 담수화 시설로 수돗물을 공급해도 물의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지게 되었다. 또한 우도의 물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된 것은 관광객의 유입에 의해 사용해야 할 물의 양이 많아진 것이었다. 이에 주민들은 제주 본섬에서 삼다수를 배급받아 식수로 사용하였다.

**천진리05:**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물이 많이 부족했어요. 관광객이 오는 것은 좋지만 불편한 부분이 우리가 마실 물이 부족했어요. 이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게 1인당 삼다수 2리터짜리 24개씩 월마다 받아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어요. 담수화 시설이 두 번인가 확장하면서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을 해결하려 했던 것 같지만, 점점 관광객 유입이 늘어나는 이유로 인해 물이 많이 부족했어요.

관광객의 증가와 더불어 물 부족은 계속 되었다. 주민들의 식수 문제 외에도 농업용수나 생활용수 문제도 불편함이 해결되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담수화 이외의 다른 방법이 있어야 했다. 우도의 상수도 공급은 매우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 4) 제주 본섬과 연결된 해저상수도

우도의 급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바다에 상수도관을 깔아 물을 공급하려는 계획은 1976년부터 시작되었다. 보건사회부가 세계 식량기구의 자금일부를 우도의 해저수도 시설에 투입하기로 하고 제주도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제주도는 구좌면 종달리에 지하 관정을 개발해서 해저 수도관을 매설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사회부에 필요한 예산 5천 2백만 원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 보건사회부가 사업비를 확보하지 않는 바람에 해저수도 계획은 추진되지 않았다. 해저수도 계획은 17년이 지난 1994년에도 이야기가 있

었으나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받지 못해 사업은 중단되었다. 자금 확보가 되지 않자 우도의 물 공급 사업은 진척이 없었다.

제주도 수자원본부가 정부에서 국비 예산 70%를 받아낼 수 있었던 것은 2008년이 되어서였다. 우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이제 더 이상 담수화 시설로는 물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시점이었다. 구좌읍 종달리와 우도 사이에 해저 상수도 시설 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되었다. 총 사업비는 120억 원을 들여 육상 송수관 12.93km, 해저 송수관 3.03km, 배수지 두 곳을 건설하였다. 2010년 12월 31일에는 우도 전 지역에 수도물 공급이 되었다. 이로써 물 부족으로 고생하던 우도는 봉천수 시대에서 지하수와 담수화 시대를 거치고 해저상수도 시대를 맞이하였다(제주특별자치도, 2018: 269).

우도에서 식수에 대한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은 해저수도관을 통해 제주 본섬에서 상수도 공급이 가능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사람에게 우도는 여전히 섬 속의 섬이지만 물 만큼은 본도와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어 본도에 의지하는 섬이 되었다.

<사진 2> 종달리와 우도를 잇는 해저상수도의 출수점



출처: 2019년 10월 31일, 필자 촬영

1999년 우도의 담수화시설 완공에 이어 2010년 12월에 드디어 우도 전 지역에 해저수도를 통한 수도물 공급이 이루어진 것은 물의 혁명이라고 할 만하다. 우도의 상주인구는 2019년 현재 1,700명 정도이며, 우도를 찾는 방문자의 수는 하루 5,000~8,000명으로 우도 주민 수보다 관광객의 숫자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한 모금의 생수를 얻기 위해 고심했던 우도 주민들의 이야기는 이제 먼 나라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그만큼 우도의 물이용 문화도 많은 변화가 왔다.

해저 상수도가 들어온 후 우도 주민들의 물에 대한 인식이나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다소 느슨해졌다. 우선 수많은 노력과 시행착오 끝에 우도의 바닷물을 담수화 하던 공장은 폐허의 모습으로 빈 건물만 남아 있다. 2019년 10월 31일 우도 현지조사 때 해저담수화 시절 공장을 찾아가 보았다. 공장 안의 기계는 녹슬고 건물의 유리창은 깨어져 있었다. 이 공장 부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는 주민과 제주도간에 의견을 조율하고 있지만 뾰족한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해저 상수도가 우도의 각 가정으로 물을 가져다 준 뒤 이전의 불편하였던 물의 역사는 빠르게 잊혀지고 있다. 담수화 시설 내부의 관리 소홀을 염려하는 지역 방송의 기사(제주 MBC뉴스, 2018.07.29.)에는 이 시설을 보다 더 내실 있게 사용하자는 목소리가 실렸다.

정문은 굳게 닫혔고, 유리에 붙어 있는 안내문에는 먼지만 잔뜩 끼어 있습니다. 건물 안은 담수화 장비가 철거돼 텅 비었고, 시커멓게 녹슨 관들만 덩그러니 놓였습니다. 이 건물이 이처럼 방치된 건 지난 2011년 우도에 해저상수도관이 연결된 이후 7년이나 됩니다. 담수화 시설을 이용해 해수사우나를 개발하려 했지만, 예산 확보가 안 되고 민간투자도 없어 무산되면서 이처럼 방치된 겁니다. 우도 주민 말에 의하면 “해수목욕탕 들어선다고 했었는데 나중에 어영부영 끝나버리니까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잖아요.” 수년째 방치 중인 담수화시설을 문화 예술 공간으로 조성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전시관과 작은 영화관, 작가를 위한 창작지원을 하자는 겁니다. 제주도는 우도 종합개발계획안에 포함시켜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식 제주도 문화정책과장은 “우도 주민들에게 상징성이 큰 자산인 만큼 원형을 유지하면서 주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최적의 방안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3> 해수 담수화 시설 내부



출처: 2019년 10월31일 필자 촬영

이 공장터를 우도 주민들의 자산으로 이용하자거나 관광객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있지만 이 시설을 어떻게 하여야 할지 의견을 모으지는 못하고 있다. 이전에 우도 주민이 사용하였던 물 시설인 봉천수 물통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 가치를 보전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던 봉천수의 물통의 대부분은 농업용수로 쓰이거나 물통자리가 매립되어 버려 옛 모습을 알 수 없게 되었다.



### Ⅲ. 우도 주민과 봉천수

#### 1. 보전해야 할 봉천수 물통

물이 인간 삶의 기본 조건인 만큼 우도의 봉천수 물통들은 우도 주민들의 삶의 원천이었고, 물을 중심으로 마을을 형성할 정도로 중요한 공공자원이었다. 그러나 해저수도가 준공되어 수돗물이 공급되면서 우도의 물이용에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봉천수 물통은 메워져 버리거나 방치 되었다. 우도의 봉천수는 옛 모습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 이는 봉천수를 먹는 물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허벅을 올려놓았던 물광도 필요가 없게 되자, 봉천수의 모습은 서서히 바뀌어갔다. 봉천수 물통을 지나는 외지인의 눈으로 본다면 연꽃이 피어 있고 풀들이 여기 저기 돌아난 물통에서 식수를 공급했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다. 이는 봉천수 물통의 용도를 농업용수로 바꾸면서 물통주변을 시멘트를 다시 바르는 등 형태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농업용수로 쓰려고 물통을 그대로 둔 곳도 있지만 예물의 구진물통처럼 주차장으로 쓰려고 물통을 메워버린 곳도 있다.

마을 청년들이 물통을 지키며 엄격한 관리를 하던 이야기는 아주 먼 시대의 과거사처럼 들린다. 겨우 반세기 만에 우도는 열악한 물의 환경에서 해방되었으나 과거의 생활사를 망각하는 듯 봉천수로부터 마음이 멀어졌다. 한편 마을의 봉천수 물통에 대해서는 방치하는 듯한 주민들이 개인의 물 문제에 관해서는 옛날의 일을 잊지 않고 있는 것도 엿보인다. 과거에 겪었던 물 부족 사태가 여전히 물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하는 것이다.

**오봉리03:** 우도는 이제 물로 인해서 고생할 필요가 없어서 좋아요. 담수화 시설 이전에는 봉천수에 물을 받아서 사용한다고 해도 날씨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가뭄이 발생하면 큰섬(제주도)에 가서 마실 물을 조달하기도 했으니까요. 상하수도가 연결되고 나서는 가정에서는 빗물을 쓰지는 않아요. 하지만 집을 새로 지

어도 빗물을 받아 두었던 봉천수 통을 철거하지 못하죠. 물통을 철거하였다가 무슨 일이 생겨 피해가 오지 않을 까하는 걱정이 있어서 그냥 그대로 두고 있어요. 우리 집 말고도 다른 집들도 그대로 방치해 놓는 곳도 있어요.

우도 주민들은 언제 또 물 사정이 나빠질까 하는 불안도 있지만 더 편리하게 물을 사용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다. 우선 본섬과 비교하면서 우도가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것이다.

오봉리 노인회관에서 만났던 한 주민은 우도의 봉천수 만으로는 제주 본섬처럼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우도 등대 아래에 있는 대형저수지의 물을 농업용수로 쓰고는 있지만 이것도 가뭄이 들면 물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일반 농사 밖에 지을 수 없다고 하였다.

**오봉리04:** 우도에서 단물 먹은 지가 한 15년 되었네. 저수지 물은 이제 농업용수로 쓴다. 저수지 위치가 높으니까 관을 연결해서 차를 대서 수도처럼 관을 연결해 놓았으니까 틀기만 하면 농업용수가 나와. 그래도 스프링클러는 사용할 수 없지. 우리가 제주도에서처럼 스프링클러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으면 특용작물도 지을 수 있지. 특작을 못해. 현재는 땅콩, 맥주보리 같은 거. 자연적으로 자랄 수 있는 작물만 심어.

우도 주민들은 농업용수에 대한 물 부족도 느끼고 있지만 제주 본섬처럼 목욕탕 시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도에서는 40여 전보다 편리해진 물 사정은 당연한 것이 되었고 불편한 물 사정은 시정해야 할 것으로 여기는 주민들이 있다. 한 주민은 해수 사우나 목욕탕 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관광객의 증가로 40년 전과는 달리 많은 시설들이 우도에 들어갔고 우도 내에서도 제주 본섬을 오고가는 교통도 편리해졌지만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공동 목욕탕이 우도에 없는 것이다.

**천진리05:** 우도가 조금씩 나아지면서 관정수, 담수화, 상수도 점차적으로 들어와 지금 현재는 화장실 변기에까지 사용하지만, 4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을 일입니다. 그리고 우도가 연간 100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의

우도는 원주민에 비해 외지사람들이 많이들 들어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를 먹어서 다 살았지만, 앞으로의 우도를 위해 우리 주홍동 산물에 해수사우나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위의 주민이 말하는 산물은 용천수가 나오는 산물통을 이른다. 위에서 적은 것처럼 산물통 옆에는 하수 처리장 시설이 들어서 있다. 또한 산물통은 물 관리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었다. 산물통을 해수 사우나 시설 자리로 특정한 것은 면담자 개인의 생각이겠지만, 목욕탕 시설은 우도에 없는 것이라 주민 염원사업의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빗물을 받아 식수로 쓰고, 빗물을 모아 생활용수로 쓰던 우도에서 지난 40여 년의 발전은 주민들로 하여금 더욱 더 새로운 기술과 자본을 바라는 쪽으로 바꾸어 놓았다.

우도는 해저 상수도관 설치로 식수 문제와 생활용수 문제를 제주본섬 수준을 해결했지만 농업용수는 제주 본섬처럼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이를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보는 주민의 시선은 내게 우도 고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일로 보인다. 우도는 제주 본섬의 지하수 개발 기술과 상수도 개발의 힘에 의지해서 오랫동안 주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였던 물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우도의 이러한 발전이 우도가 갖고 있던 오래된 물의 전통을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봐야 한다. 이에 대한 증거로 나는 상수도관이 개설된 이후로 우도 주민의 식수를 공급했던 산물통의 관리 소홀로 이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현재는 농업용수로 쓰고 있다고는 하지만 차츰 봉천수 물통이 매립되거나 폐쇄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도가 겪어왔던 가까운 과거의 일을 봉천수 물통은 알고 있지만, 그 봉천수와 함께 살아왔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봉천수에 갇들어 있던 우도 사람들의 문화를 후세대에게 전해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여진다. 가끔은 물통의 소유권을 두고 주민과 마을 사이에 분쟁도 일어나는 실정이다. 오랫동안 어렵게 지켜내던 공동체의 문화가 어느 결엔가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다.

## 2. 오래된 미래, 봉천수의 재발견

5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제주의 먹는 물은 용천수가 나오는 해안의 용천수나 중산간의 샘물에서 얻었다. 그러나 지하수 관정을 뽑아내는 기술의 발전으로 제주의 용천수는 제주 본섬은 물론 우도의 물 사정까지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물의 편리성은 사람이 어느 곳에 있든 손쉽게 물을 구하는 쪽으로 바뀌어서 수돗물로 먹던 물이 페트병에 담은 물로 대체되었다.

제주개발 공사는 제주의 용천수를 삼다수라는 상품으로 만들어 용기에 담아 팔기 시작하였다. 지난 20년 동안 제주의 용천수는 기업의 기술에 힘입어 어디에서나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이 되었고 기업이 된 제주개발공사는 유통을 해 줄 협력사를 찾아 더욱 더 많은 삼다수를 판매하려고 하고 있다.

먹는 샘물 삼다수를 운영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2019년 11월 7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2019 제주삼다수 파트너스데이'를 열었다. 이날 개발공사는 제주삼다수가 먹는 샘물 시장 1위 브랜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며 광동제약과 LG생활건강 등의 파트너들과 상생협력을 통해 함께 발전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공사는 제주 삼다수 매출 3000억원 시대의 포문을 여는 동시에 국내의 먹는 샘물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파이낸셜뉴스, 2019.11.08).

제주본섬은 물론 추자도, 우도, 비양도, 가파도, 마라도에서 생명의 물로 여겨지던 용천수나 빗물은 이제 거의 이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가뭄 시에는 용천수의 용출량이 감소되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빗물도 모이지 않아 가장 필요할 때마저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를 해결한 것이 제주도의 지하수 개발이다. 지하수가 나오는 곳을 뚫는 관정 추출 기술 개발 덕분에 오랜 세월 물 부족으로 고생하던 제주도와 부속 섬들은 풍요한 물의 섬으로 거듭났다. 그러나 용천수나 봉천수와 마찬가지로 지하수도 자연의 영향을 받는다. 무한정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상수도가 보급된 후에도 봉천수 물통은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 우도 주민의 물이용 방법은 지속가능한 환경보호라 할 수 있다. 농업용 빗물 이용시설은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에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다.

빗물 관리의 효과는 첫째, 홍수 발생을 줄임으로써 홍수조절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둘째로는 상수처리비용을 낮추어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셋째로 자연 재해와 같은 비상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넷째로는 생태계 파괴의 원인이 되는 댐 건설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가장 큰 효과는 물 부족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빗물은 가뭄 때 농업용수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지만 제주도에서 빗물 이용을 의무화 한 시설은 골프장뿐이다. 빗물이 바다로 흘러가지 않도록 저류지 개발을 하는 것도 가뭄 대책이나 지하수 보전에 필요한 일이다. 가뭄 때와는 달리 홍수 때는 빗물은 위험한 것이 되기도 한다. 이에 태풍과 집중 호우에 대비하여 제주도에서는 저류지를 개발하였다. 도내의 하천의 범람으로 생기는 인명과 재산 피해는 오랫동안 제주도 사람들을 곤란하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저류지를 개발하여 홍수 때의 빗물 관리를 하려 하였지만 제주도에 조성된 저류지의 경우는 폭우가 내리면 저류지에 토사가 쌓여 제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저류지가 범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제주일보, 2019.10.17). 한편 한림읍 금악리의 저류지는 2013년에 조성되었으나 저류지 주변에 토사가 쌓여 배수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제주시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이 지역에서 밭에 있던 흙까지 배수로에 쌓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빗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은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빗물을 잘 이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려는 노력은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해주려는 환경단체들의 활동이 그것이다. 한국환경재단은 서울대학교 빗물이용연구센터와 협력하여 베트남 어린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있다(국민일보, 2015.03.14).

베트남 쿠케 마을의 지하수는 천연적으로 비소를 함유하고 있으며, 이는 베트남 수질 기준의 8~10배 이상이다. 그러나 쿠케 마을은 주민소득이 매우 적은 동네이기 때문에 생수를 구매할 시 경제적인 부담이었다. 쿠케 마을의 가정들은 오래전 우도 주민들이 그랬던 것처럼 '빗물'을 식수로 활용하고 있었다. 각각 가정마다 빗물을 모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식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문제는 빗물 저장 시설의 설계나 관리가 과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질의 안전성이 우려가 되는 것이다. 이에 서울대학교 빗물이용센터는 쿠케 마을

에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여 주었다. 지붕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빗물관리시설의 저장탱크에 모아 두고 빗물을 따로 거를 수 있는 초기 빗물제거 장치와 정수 장치를 추가로 설치한 것이다. 이는 우도주민들이 지붕에서 내려오는 물을 이용하던 것과 같으나 쿠케 마을에 설치한 정수 장치는 현대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수질이 좀 더 나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현대의 기술을 접목한다면 자연친화적인 빗물의 이용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빗물을 연구하며 빗물의 가치를 설파하는 한무영 교수는 “우리 조상들은 현명했어요. 빗물을 받아서 썼기 때문에 물이 부족한 줄을 몰랐으니까요. 제주도에 가면 나무에서 빗물을 모으는 촌항이라는 것이 있어요. 또 제주도 옆에 작은 섬 우도가 있는데, 그곳에서는 옛날에 빗물을 받아 썼죠. 아직도 그곳에 가면 빗물통이 집집마다 있어요. 그런데 그 좋은 빗물을 두고 지금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상수도 시설을 했어요”(한무영, 강창래, 2018)라고 하였다. 그가 말한 상수도 시설은 바로 바다 밑에 수도관을 놓은 해저상수도관을 말한다. 그는 해수 담수화보다도 빗물 담수화가 효율이 좋다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였다.

빗물이 얼마나 깨끗한지는 처리되는 양을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해수를 담수화할 때도 멤브레인을 씩니다. 그런데 해수를 담수화할 때는 대략 3%를 쓸 수 있습니다. 97%는 버려야 합니다. 반면, 빗물은 97%를 씩니다. 대략 3%만 버립니다.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이러니 제가 빗물을 저탄소 녹색 성장에 딱 맞는 물이라고 말하는 거죠(한무영, 강창래, 2018).

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우도에서는 해수 담수화 사업은 효율이 떨어지는 것이었다. 오히려 빗물을 모아 담수화하는 방법을 우도의 저수지에 적용했다면 어떠했을까. 우도의 대형저수지 시설이 실패한 원인을 충분히 밝혀보지도 않고 그대로 덮어 버렸던 것은 아니었을까. 해수가 아니라 빗물을 이용하고, 기술적으로도 보강하였다면 다른 결과를 낳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우도는 현재 이전보다 높은 기술력과 자본력으로 해저 상수도관을 매설했고, 물 문제에서 해방되었다. 물 부족이라는 위기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던 우도는 제주 본섬의 물에 의존하게 되었다. 이는 섬의 자생력을 버리고 본섬에 의존하는 방식이 되어 버렸다.

## IV. 결론

이 논문에서는 물 부족 때문에 우도 사람들이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리고 어떻게 그 어려움을 해결하였는지를 봉천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서 우도 주민들에게 물은 중요한 자원이었다. 이는 마을 이름과 물통 이름이 같은 곳이 많다는 데서도 알 수 있었다. 물이 생활에 필수적인 것인 만큼 물을 많이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물은 금전 이상으로 중요했다. 이를 ‘물 부조’라고 하였다. 물통은 어린이들에게는 놀이터였고 어른에게는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 얻는 만남의 장소였다.

우도에 인구가 늘어나면서 물의 수요는 커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도 사람들은 마을마다 봉천수, 즉 빗물을 받아 모을 물통을 만들었다. 각 가정에는 집수시설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자연재해로 가뭄이 들면 마을의 물통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분쟁의 요소가 되기도 했으며, 가뭄이 너무 심해서 자체적으로 물공급을 할 수 없게 되면 우도 주민들은 제주 본섬으로 배를 타고 가서 물을 싣고 왔다.

빗물은 우도 주민의 생명수였고 빗물을 모은 봉천수 물통은 마을의 자원이었다. 하지만 물을 확보하더라도 집수된 물의 수질은 좋지 않았다. 물의 수질이 좋지 않은 것은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했다. 물의 수질 개선을 위해 우도 주민들은 빗물을 끓여서 이용하는 등 개인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우도에는 마시는 물의 수질 문제 때문에 병에 걸리는 사람이 많았다.

마을과 개인의 노력으로 물 문제를 해결하던 우도 주민들은 행정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우도에는 대형 저수지가 개발되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우도의 물 부족 문제와 수질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지 못하였다. 식수 사용면에서 제주 본섬은 일찍이 제주 본섬 전역에 상수도 개발하여 물 공급이 원활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도에서는 주민들의 노력과 행정의 노력이 어울려졌어도 물 문제의 해결이 느렸다. 해수 담수화 사업도 식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제주도는 우도와 제주 본섬을 잇는 해저상수도관 설치하였다. 해저

상수도관이 설치되고 나서야 비로소 우도는 물 부족의 곤란에서 해방되었다.

우도에 인구가 늘고 최근 들어서는 섬 속의 섬으로 유명해지면서 물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200만 관광객 시대를 맞고 있는 우도는 봉천수 물통을 공동자원으로 이용하던 때보다 더 많이 물을 소비하는 섬이 되었다. 유입인구의 증가는 우도가 더욱 더 자체적으로는 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우도의 주민들은 앞으로도 주변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며, 제주 본섬으로부터의 물 공급이 끊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를 의식하는 우도 주민들은 집에서 사용하던 집수시설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마을 안에 있는 남아 있는 봉천수를 받던 물통도 매립하지 않도록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는 주민들 사이에 봉천수 물통이 마을의 공동 자산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며, 물이 부족하던 시절의 어려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몇 개의 봉천수 물통이 매립되긴 하였으나, 봉천수를 받던 물통의 70% 이상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다. 이렇게 물통이 매워지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은 우도 주민이 오래 전에 겪었던 물 부족 사태를 삶의 위협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우도 주민들이 봉천수 물통을 만들어 사용하면서 우도의 자연환경을 받아들이고 물의 자급을 실천했던 생활 사례를 조사하고 정리했다. 가뭄으로 물 부족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제주 본섬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극복하였고, 최근에 들어서서 해저 상수도관을 연결하여 간신히 오랫동안 주민들을 힘들게 했던 물 문제를 해소하였다. 그러나 주민들은 아직도 여전히 과거의 물 부족 때문에 곤란을 겪었던 시절을 기억하고 있었으며, 물통을 매워버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물이 부족해질 때를 대비하는 생각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강만익, 1993, 『도서지방의 어촌에 관한 연구-제주도의 우도를 사례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병련, 2016, 『섬의 산물』, 제주발전연구원.
- 고충석, 2016, 「나를 키워 준 우도의 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 연합회, 『우도면 역사문화지』.
- 김새미오, 2019, 「물에 대한 기억과 그 문화-제주바다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제73집, 한국한문학회.
- 김선필, 2013, 「제주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와 공동자원 개념의 도입」, ECO 제17권 2호, 한국환경사회학회.
- 김선필, 2017, 「인간의 생존과 자연: 제주의 물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최현 외, 『공동자원론, 오늘의 한국사회를 묻다』, 진인진.
- 문경미, 2015, 『제주지역용천수의 이용관행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원배, 2009, 「제주도 물 문화의 소고」, 『제주발전연구』 제13호, 제주발전연구원, 2009.
- 박원배, 고기원, 문덕철, 2004, 「제주도의 빗물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 『제주발전연구』 제8호, 제주발전연구원.
- 박원배, 정영태, 2010, 「물 문화와 제주 산물의 가치 제고」, 『제주발전연구』 제14호, 제주발전연구원.
- 부영성, 1987, 『舊左邑誌』, 태화출판사.
- 송시태, 2003, 『섬 중의 섬 우도는 어떻 멩그라진 섬일까?』, 성민출판사.
- 우도지편찬위원회, 1996, 『우도지』, 태화인쇄사.
- 전경수, 1995, 「용수문화, 공공재, 그리고 지하수 : 제주도 지하수개발의 반생태성을 특성으로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제12집, 제주도연구회.
- 정광중, 2006, 「제주여성들의 옥외 노동공간의 성격과 특성에 대한 연구」, 『초등교육연구』 제11호, 한국초등교육학회.

정광중, 「제주도 생활문화의 특성과 용천수 수변공간의 가치 탐색」, 『국토지리학회지』 제50권 제3호, 한국국토지리학회, 2016.

제주발전연구원, 2008, 『여성문화유적』, 도서출판 각.

제주특별자치도, 2018, 『제주 상수도개발 60년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 연합회, 2016, 『우도면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2007, 『우도학술보고서』.

조성윤, 2019, 「우도의 주민: 원주민과 정착주민」, 『우도잡기』,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한무영, 강창래, 2018, 『빛물과 당신』, 알마출판사.

한정효, 2019, 「우도 물의 변천사」, 『우도잡기』,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현길연, 1995, 「물에 대한 제주사람들의 인문학적 인식, 제주설화를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제12집, 제주도연구회.

#### 번역서

채레드 다이아몬드, 2019, 『대변동:위기,선택,변화』, 강주현 옮김, 김영사.

#### 언론 자료

「제주일보」 (2004.12.14) 우도저수지 및 담수화 시설을 활용한 해수

「국민일보」 (2015.03.14.) 아이가 먹는 물 깨끗해지자 ‘마음의 문’ 열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974511>)

「제주의 소리」 (2018.03.22) “세계 물의 날, 심각한 제주 물 문제 깨달아야”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201940>)

「제주 MBC뉴스」 (2018.07.29) 7년 방치 우도 담수화 시설, 활용방안은?  
(<https://jejumbc.com/article/vN6sYfGzBO5oO2c>)

「제주일보」 (2019.10.17) 제주시 저류지 일부 비정상 작동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132298>)

「파이낸셜뉴스」 (2019.11.08) 제주삼다수 파트너스데이 “내년 매출 3000억원 시대 연다” (<http://www.fnnews.com/news/201911081057190463>)

## Abstract

### A Study on the Water Use of Udo Residents in Jeju Island

HAN, Jeong-Hyo  
Department of Sociology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The Jeju people used Yongcheon-Su, which rises as a surface through cracks in the rock or strata, as drinking water. However, when Yongcheon-Su was not enough, Bongcheon-Su was used as drinking water. Bongcheon-Su is a collection of rainwater from individual houses or trees, or from community reservoirs, where Yongcheon-Su is available, Bongcheon-Su was used for domestic water and cows, horses.

In terms of water availability, the Udo Island region had greater natural constraints than the main island of Jeju. Although Jeju main island had Halla Mountain and valley and Yongcheon-Su along the coast, there were no mountains or valleys in Udo Island, which was different from the natural conditions of Jeju main island. This external environment made it difficult to get water in Udo and even bigger crisis came when drought came. Also, the shortage of drinking water became worse as more people moved to Udo Island and lived there. Water shortages were a pressure that weighed down Udo Island.

This thesis focused on the crisis of water shortages that the people of Udo Island experienced and examined how they tried to solve the water shortage problem with a bucket of water. Since people lived in Udo Island, the water

problem was a difficult task to solve, and people in Udo Island also investigated how they solved the water shortage problem. And now that the shortage of drinking water has been resolved, the people of Udo Island have explained to them what the bucket of Bongcheon-Su means.

In this thesis, the residents of Udo Island made and used the bucket of Bongcheon-Su to accept the natural environment of Udo and to practice water self-sufficiency. When water shortages were caused by a drought, the crisis was overcome with the help of Jeju main island, and recently, water problems that had been difficult for residents for a long time were resolved by connecting the water supply pipes. However, residents still remember a time when they suffered from water shortages in the past, and were able to confirm that they were prepared for water shortages while not filling up the water tanks.